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 흙1 리

SEONHEUL1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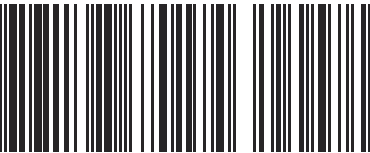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세계유산지구 마을 중의 하나인 선흘1리는 남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지대로 유명한 선흘곶자왈과 곳곳에 습지 등이 분포하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집단촌인 낙선동성이 있어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체험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선흘1리가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들과 아름다운 경관, 생활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선흘1리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지구 마을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생활상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고, 마을의 바람직한 미래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을 내면서〉중에서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1리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비매품
ISBN 979-11-6867-017-4
ISBN 979-11-6867-014-3(세트)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1리

선흘1리는

제주 동부지역 중산간 마을로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속한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33°30'41.7", 동경 126°42'18.6"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19,688,000㎢ 이른다. 선흘리에서 선흘1,2리로 분리됐으며,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인구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475세대 950명(남 480명, 여 470명)이다. 설촌 시기는 조선중엽으로 추정되며, 예부터 과거급제자가 많이 나와 양반촌으로 일컬어왔다. 남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지대로 유명한 선흘곶자왓과 제주4·3사건 당시 집단촌인 낙선동성이 있어 제주의 자연생태와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체험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2013년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책을 내면서

제주도는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에 오른 세계적 보물섬입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르렀습니다. 제주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가치는 세계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그만큼 제주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은 주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이번에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의 협조로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을 펴낸 이유 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10년에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을 펴낸바 있습니다.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발간 작업은 그동안 세계자연유산지구 마을의 변화상 등을 담은 개정증보판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발간은 세계유산마을에 대한 재조명이자,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세계자연유산과 유산지구 마을이 공존 발전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세계자연유산지구 7개 마을-김녕리·덕천리·선흘1리·선흘2리·성산리·월정리·행원리-의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사회 및 생활자원, 산업자원, 관광자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마을의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들을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사진자료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유산지구 마을 중의 하나인 선흘1리는 남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지대로 유명한 선흘곶자왓과 곳곳에 습지 등이 분포하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집단촌인 낙선동성이 있어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체험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선흘1리가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들과 아름다운 경관, 생활상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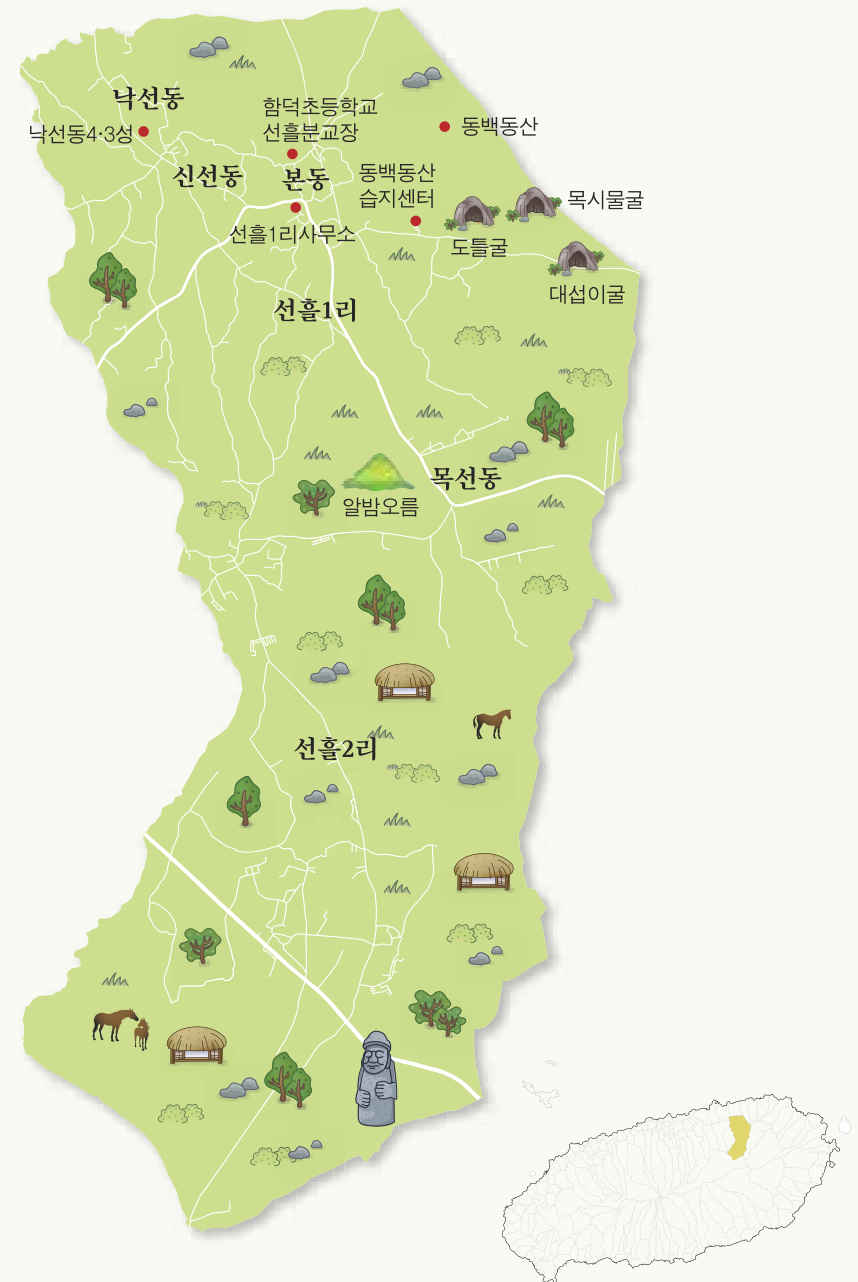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선흘1리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지구 마을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생활상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높이고, 마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숲은 마을을 품고, 마을은 사람을 품고 선흘1리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간담회와 자문위원회의 등을 통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흘1리 부상철 이장님과 진은주 이사무장을 비롯 원고 작성을 위해 현장 조사 및 인터뷰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간사업을 수행해 준 사단법인 제주역사문화진흥원 및 집필진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



선흘1리

1. 지질 용암의 바다를 품은 마을	24
자연생태자원	
고래등 지형 위에 자리 잡은 마을	24
선흘1리를 보호하는 알밤오름	28
고서(古書)가 전해 준 선흘고수(古藪), 꽃자왈	30
선흘1리 설촌의 생명수	33
용암선상지에 자리 잡은 겨울에도 푸른 숲 선흘곶	36
학교림 동백나무의 수난(受難)사	41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자손들	43
주민들과 함께 4·3의 아픔을 함께한 선흘곶 용암동굴	47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동백동산 람사르습지를 확대해야	49
용암의 바다 동백동산	55
동물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처	58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	59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긴꼬리딱새	61
하얀 눈 테가 선명한 동박새	64
꽃자왈 습지에서 달콤한 휴식을 보내는 원앙	67
먼물깎 습지에서 산란하는 제주도롱뇽	69

식물 다양한 식생과 습지를 품은 마을	72
선흘곶의 식생	72
동백나무가 많은 선흘곶	76
한국 신속 신종 제주고사리삼을 탄생시킨 선흘곶	81

2. '숲'과 '수풀'의 뜻이 담긴 마을 이름과 역사	88
역사문화자원	
설촌과 마을 역사	88
선흘촌의 등장	88
선흘촌에 들어온 사람들	92
조선시대 관리를 많이 배출한 마을	94
유적과 유물	95
선흘리 비석	95
신화와 전설	97
안판관과 고대정 신화	97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	99
4·3사건	100
4·3 이전 평온한 마을	100
4·3의 광풍에 휩싸여	101
선흘리 주요 사건	104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	105

선흘1리

3. 사회·생활자원	무한한 녹색에너지 선흘곳을 품은 마을	110
	마을 환경과 마을을 구성하는 사람들	110
	놀라운 반전, 선흘분교가 선흘초등학교로 승격	114
	청소년의 독립심과 자급자족 키우는 법씨학교	117
	마을 사람들의 생활사	119
	선흘곳의 과거와 현재	119
	마을 공동체적 제의와 민간 신앙	128
	마을 음식 체험, 도토리 칼국수	132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바람	136
4. 산업자원	습지로 일군 마을 산업	144
	산업경제 활동	145
	밭작물과 감귤재배	145
	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목장 쇠퇴	147
	동백동산 주말장터	150
	자연과 함께 하는 먹거리	152
	사회적경제 지원 및 경영조직	154
	생태관광지,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곳	154
	자연이 숨쉬는 곳, 도구리 영농조합법인	155

청정자연의 환경친화적 제품, 이미에 갈옷	157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법씨마을협동조합	158
마을 발전과 애향의 단성(丹誠)	160
정수장(井水場) 및 식송(植松) 사업	160
주민들의 삶의 원천, 식수용과 우마용 물	162
주민들의 생활상, 숯 굽던 가마터와 숯막	164
지하수 개발을 통한 마을 발전	166
습지가 품은 자연생태우수마을	166
마을발전의 공로 새긴 비석 건립	167
향리 출신들의 기증, 마을 기반시설 조성	170

5.	숲은 마을을 품고, 마을은 사람을 품고	174
관광자원	프로로그	174
	둘러보고, 찾아보고	177
	관광자원 포인트	180
	선흘1리 여행의 출발과 마무리 동백동산습지센터	180
	원시의 풍경 속으로 동백동산 숲길	182
	‘낙선동4·3성터’의 기억	203
	‘불카분낭’의 사연	210
	에필로그	213
	‘생태관광마을 선흘1리’의 여정	213
	원탁회의, 그리고 행복한 생태관광사업	216
	영원한 상생의 땅으로	221
	참고문헌	224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 1리

1. 자연생태자원

선흘1리에는 100여개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선흘1리 주민들은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동백동산 부근의 음용수를 이용하며 살아왔다. 동백동산의 습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 양서류가 서식하는 생명수이다. 이곳의 습지에는 제주도롱뇽, 산개구리, 누룩뱀, 유혈목 등이 서식하고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순채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자란다는 제주고사리삼도 자생하고 있다. 이들 습지가 있었기에 선흘리 주민들은 손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현명한 이용해 온 결과 2011년 람사르(Ramsar) 습지로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다.

선흘1리의 옛 이름은 선흘(先屹)이고 ‘흘’은 ‘숲·수풀’의 뜻을 갖고 있는 제주어로 곳자왈이 잘 보존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 선흘리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선흘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동방향의 중산간 지대인데, 마을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겨울에도 푸른 숲을 자랑하며 빛을 발하는 동백동산이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2007년 거문오름용암동굴계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고래등 지형 위에 자리 잡은 마을

선흘리의 남북경계는 대체적으로 일주동로 1132번 도로 북촌서교차로의 북선로 남쪽 850m부터 알밤오름 남동쪽 목선동교차로에서 동서방향으로 길게 뻗은 선교로의 북쪽 방향에 해당된다. 또한 함덕과 선흘의 북서쪽 경계지점은 함와로와 북선서길이 만나는 지점의 저류지에서 동쪽으로 크라운CC의 남쪽을 거쳐 구사산 정상부

부근까지 이어진다. 동쪽 경계는 구사산 정상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동백로와 선유로가 만나는 회전교차로까지 직선이며 회전교차로에서 거의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중산간동로(1136번 도로)의 안전분리대가 있는 지역까지이다. 서쪽의 경계는 명죽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북촌서교차로에서 선흘리교차로까지 마을을 잇는 북선로와 선흘1리사무소에서 알밤오름에 이르는 중산간동로인 1136번 도로는 주변의 지형보다 높은 곳을 위주로 개설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생 마을인 낙선동, 신선동, 선흘1리사무소가 위치한 본동과 윗동네는 요철(凹凸)지형에서 고래등과 같이 지대가 높은 마루 부분에 자리 잡고 있어서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마을의 도로를 만드는 데에도 주변의 여건을 살피는 선인들의 꼼꼼한 지혜가 엿보인다.

특히 4·3 사건 당시인 1948년 11월 21일 마을이 전소되어 새로 지은 낙선동 4·3성은 사방을 훤히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세워졌다. 낙선동 4·3성은 토벌대의 무력 진압이 있을 때 주민들과 무장대 간의 연계를 차단하고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성곽 위에 올라서면 북쪽으로는 서우봉이, 서쪽으로는 대흘리와 함덕리와의 경계인 명죽내를 너머 먼 곳까지 쉽게 조망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동백동산 숲이 있는 곳까지 지형경사가 완만하게 낮아져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위치이다. 무장대의 습격을 막으려면 먼 곳까지 조망하기 위하여 지대가 높은 곳에 성곽을 쌓고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선흘리의 요철(凹凸)지형에서 고래등처럼 지대가 높은 부분은 대



알밤오름에서 바라본 선흘1리 전경

부분 최후에 흐른 곳자왈용암류의 암괴로 이루어져 있어 물빠짐이 좋으나, 낮은 저지대의 경우는 곳자왈용암류가 흐르기 이전인 빌레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 빠짐이 좋지 않아 물이 고이기 마련이다. 선흘교차로와 선흘1리사무소 사이의 낮은 지대를 관통하는 중산간도로인 1136번 도로 주변에 광명타운, 현대 모비스 제주부품사업소 등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주변보다 지형이 낮아 빗물이 모여들어 침수가 되었던 곳은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여 개발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 하지만 집중호우시에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임에 틀림없다.

선흘1리를 보호하는 알밤오름

▲알밤오름(392.2m)

분석구로 이루어진 육성화산체이다. 알밤오름의 해발표고는 392.2m, 산체의 비고는 154m, 알밤오름을 동쪽과 남쪽의 도로변에서 바라보면 마치 원추형의 오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북서향의 말굽형 분화구로 이루어져 있다. 알밤오름은 사유지이며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오름의 남쪽과 서쪽 사면에 해송과 삼나무가 조림되어 있고 분화구 안쪽에는 자연림이 자라고 있다. 오름의 정상부에 자연림이 자라고 있으나 알밤오름 정상에 오르면 선흘1리의 모든 마을 곳곳을 자세히 둘러볼 수 있다. 알



알밤오름의 전경

밤오름이 없었다면 선흘1리와 함덕, 북촌, 동북리 등 낮은 지대에 위치한 마을을 쉽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밤알을 닮은 화산체 두 개가 위아래로 이어져 있음에 연유하여 명칭이 붙었으며 위(上)와 아래(下)로 구분하고 있다. 해발표고가 높은 위쪽에 위치한 선흘2리에는 윗밤오름이 해발표고가 낮은 아래쪽에 위치한 선흘1리에는 알밤오름이 자리잡고 있다.

고서(古書)가 전해 준 선흘고수(古藪), 꽃자왈

고려시대 이후 중산간 지역의 숲지대가 초지대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도 꽃자왈지대는 여전히 숲으로 남아있음을 옛 지도에서 알 수 있다. 선흘(善屹)리의 흘(屹)은 ‘숲·수풀’의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마을의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꽃자왈 숲이 잘 보전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의 용암지대와 어우러진 꽃자왈 숲은 와흘·대흘·선흘·금물흘로 이어지는 꽃자왈의 분포적 특성을 마을 이름에 담았다.

제주목사 이형상(1653-1733)이 제주의 각 고을을 돌아다닌 후 화공 김남길에게 방어시설, 행정시설, 생활상 등의 주제별 그림을 그리게 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한라장축(漢拏壯囑)에는 선흘리에는 저목수(楮木藪)가 김녕쪽으로 연결되어 묘산봉 위쪽까지 김녕수(金寧藪)로 표현하였고, 동쪽 덕천리에는 덕천리의 예시 지명인 금물흘(今勿屹)이 표시되어 있어 꽃자왈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藪)’는 숲이나 덩불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다. 이형상 목사의 《탐라도》에도 선흘리·덕천리·김녕리의 꽃자왈을 ‘수(藪)’

로 곳곳에 표시하였다. 《영주산대총도》에도 한라산에서부터 내려온 꽃자왈을 자세하게 그려 놓았는데 선흘에서 둔지봉 주변까지 폭넓게 김녕수(金寧藪)로 그려 놓았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선흘에서 이어지는 꽃자왈의 모습을 김녕수로 표시하였으며, 선흘꽃자왈 지역에 움푹패여 있음을 나타내는 흑갱(黑坑)을 표시하였다.

제주로 귀향 왔던 이건(李健, 1614-1662)은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서 “섬에서는 크고 작은 소를 여름이나 겨울이나 들에서 풀어놓아 길렀다(島中 大小牛馬 無論冬夏 皆放墜之而牧之於)”고 기록하고 있다. 소나 말을 겨울에도 들판에 풀어놓고 기르는 목축문화는 겨울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제주의 따뜻한 기후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제주의 겨울은 매섭다. 특히 해발 200m가 넘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자리한 목장지대에서 소나 말이 겨울을 나기란 쉽지 않다. 눈이 내려 먹을 것이 부족한 데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대는 추운 겨울을 견디며 봄을 맞기까지 꽃자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꽃자왈에서 소나 말을 풀어놓고 기르는 것을 ‘꽃치기’라고 하며 꽃자왈에서 자라는 말이나 소를 ‘꽃말’, ‘꽃쇠’라고 불려왔다.

제주에서 경관이 뛰어난 10곳을 뜻하는 영주십경(瀛州十景), 그중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에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다. 고수목마에서 흔히 한라산 푸른 풀밭에 말들이 뛰노는 그림을 연상하나 글자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오래된 숲(古藪)’에서 말을 방목하는 모습을 뜻한다. 한라산 중산간지대의 오래된 숲인 꽃자왈에서 말들을 방목했던 옛 목축 방식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처럼 꽃자왈은 겨울철 목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



동백동산을 이루는 암괴

용하기 위해 꽃자왈을 보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꽃자왈이 주변 초지와는 달리 숲으로 유지돼 온 구체적 이유를 기록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꽃자왈이 갖는 특성과 과거 목축문화를 통해 이를 추정할 수 있다. 크고 작은 용암으로 이뤄진 꽃자왈에 불을 놓더라도 초지가 형성될 수 없기에 애써 이 지역을 목장으로 개간할 까닭이 없었다. 오히려 소나 말이 꽃자왈에 잘못 들어갔다 바위틈에 다리가 빠져 다리가 부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으니 꽃자왈마다 소나 말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했다. 또한 돌무더기로 이루어진데다 습도가 높으며 상록수가 자라는 숲인 꽃자왈에 불을 놓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꽃자왈은 중산간이 초지로 변한 조선시대 이후에도 숲을 유지해왔다. 옛 꽃자왈이 제주 중산간에 아름답게 펼쳐진 모습은 당시 문헌과 지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입산봉과 묘산봉 남쪽 일대에 거대한 숲이 나타난다. 김녕에서 선흘까지 한 몸체로 이루어진 이 숲은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던 터라 김녕굴과 따로 또 같이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김녕굴과 연결된 선흘곶은 1530년(중종 25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에 金寧藪(김녕수)로 표기되어 있다.

선흘1리 설촌의 생명수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도는 지표수가 부족하여 봉천수나 용천수에 의존하여 살아왔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명수로서의 용천수는 마을의 설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주의 많은 마을이 해안을 따라 생겨난 이유는 해안선을 따라 용출되는 용천수가 풍부했기 때문이다. 중산간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물 문제에 관한 한 수많은 설움을 많이 받고 살아왔다. 용천수가 극히 적어 하늘에서 내려주는 봉천수에 의존하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건천으로 항시 흐르는 물이 없다. 특히 조천읍에는 하천이 거의 없다. 선흘리와 대흘리·함덕리를 경계로 지어지는 곳에 멍죽내가 있긴 하지만 제주도의 대부분의 하천과 같이 건천을 이루고 있으며 폭우 시에 잠시 물이 흐를 뿐이다. 이러한 하



먼물각

천이 흐르는 지역은 대부분이 지형경사가 낮은 지역이지만 선흘리는 하천보다 지형 경사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물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흘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는 투수성이 좋은 꽃자왈용암이 분포하고 있어 강우시에 지표면에서 머금은 물이 지하로 흘러내리면서 모여들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점성이 낮은 빌레용암은 낮은 저지대를 파도와 같이 흐르면서 굳어져 요철지형을 만들면서 낮은 지형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연못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형·지질적 요소에 의해 사람들과 마

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있었기에 선흘리를 설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선흘리 주민들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 내의 습지 외에 여러 개의 소규모 습지들이 분포하고 있어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습지의 크기는 수m에서 수십m로 매우 다양하며 이들 습지에는 연중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습지가 있었기에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물, 농업에 필요한 말과 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이 있었다.

이외에 선흘1리 주민들이 활용했던 연못을 살펴보면, 뽕디왓(낙선동)에서 이용했던 마툰이물(마투물, 마탱이물), 큰굴왓 너머에 있는 못(뱃못), 동백동산 내에 위치한 먼물(먼물각) 그리고 알바메기 동쪽 대수동(大水洞)에 있는 큰물을 들 수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곳도 많다. 선흘1리와 동북리 경계인 뒤휴방굽에 있던 뒤휴방굽물(뫓썩은물), 흑구왓에 있던 정돛물, 뱃산전에 있던 뱃산전물, 벤자기산전에 있던 벤자기산전물, 낙선동 느린둥이에 있던 느린둥이물과 새물(알새물), 새물동네에 있던 엉덕물과 새로판물 그리고 자락못, 새물동네 북동쪽 알산전에 있던 봉근물, 돛바령(돛바령)에 있던 돛바령물(돛바령물), 덧낭케 가까이에 있던 덧낭케물 그리고 반못(뱃못) 가까이에 있던 궤웃물 등 수많은 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궤웃물은 선흘1리 웃선흘 동남쪽에 있는 궤(바위굴)에 있는 물을 말하는데, 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빌레를 궤우물빌레라 한다.

용암선상지에 자리 잡은 겨울에도 푸른 숲 선홍꽃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된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거문오름곶 자왈용암류는 분화구 일대에 거대한 함몰지와 협곡을 만들며 북쪽으로 흘러 알밤오름과 북오름의 사이를 지나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홍곶에 이른다. 위성사진에서 동백동산(冬栢東山)이 위치한 선홍곶의 숲을 살펴보면 북오름을 기준으로 부채모양의 선상지(Alluvial fan, 扇狀地) 형태로 수목이 자란 모습을 볼 수 있다.

거문오름 일대가 깊은 함몰지와 용암도랑 등으로 원시미가 넘치는 생태계를 이룬다면 동백동산은 습지와 압력돔이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는 곳이다. 거문오름에서 북오름을 지나 선홍곶까지 이어진 곶자왈용암 위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곶자왈지대인 동백동산은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등이 우점하는 울창한 산림지대이다. 동백동산은 원래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동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동백나무는 차나뭇과에 속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중국 등의 기후가 따뜻한 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해안이나 섬에서 자란다. 꽃은 이른 봄에 피는데 매우 아름다우며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栢), 추백(秋栢), 동백(冬栢)으로 부른다.

동백동산은 넓은 면적의 요철지형 위에 뿌린 내린 동백나무,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등의 상록수와 활엽수, 낙엽수들에 의해 태양을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동백동산내에서 밤을 제외하고 항상 숲 속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울창한 숲 속 나무 사이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빛들의 아





겨울에도 푸른 숲 선홍꽃

름다움은 우리들의 눈을 호강시켜 주고도 남음이 있다. 서로 다른 나뭇가지들은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빛은 바람에 움직이는 나뭇잎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움에 새로움을 더하는 연출력을 뽐낸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빛들과 나뭇잎 사이로 나오는 빛은 미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자연의 색을 만들어 낸다. 숲 속에 가득 드리운 빛은 행복한 따사로움이 되어 녹색의 잎과 하얀색의 꽃잎을 더욱 선명하게 채우며 조화롭게 매워진 색감들은 멋진 그림이 되어 한폭의 아름다운 명화가 탄생한다.

동백동산 탐방로 입구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먼물깎과 숲 가장자

리에 있는 반못을 비롯해 숲 곳곳에 습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동물에게 생명수를 주고 있다. 먼물깎이나 반못처럼 일 년 내내 마르지 않는 연못들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면 물이 고였다가 며칠 내로 서서히 물이 마르는 건습지도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질 특성은 생태계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있다. 선홍꽃 습지에서 발견되는 양서류는 제주도롱뇽, 산개구리, 참개구리, 맹꽁이 등이며 도마뱀, 줄장지뱀, 쇠살모사, 누룩뱀, 유혈목이, 실뱀, 비바리뱀 등 제주에 서식하는 파충류의 대부분을 볼 수 있다.

습지가 분포하는 것은 동물뿐 아니라 식물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먼물깎을 비롯해 숲 곳곳에 분포한 습지에서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순채를 비롯해 가는물부추, 어리연꽃, 붕어마름, 실말, 통발과 같은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다. 물이 쉽게 빠지는 건습지에는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이 자생하고 있다. 꽃자왈 가운데도 선홍꽃에서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은 쉽게 물이 빠지는 꽃자왈 지형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다.

습지의 역할 못지않게 압력돔의 역할도 중요하다. 종가시나무를 비롯한 동백나무 등이 어우러진 상록활엽수림을 키워낸 것이 바로 압력돔 지형이다. 선홍꽃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지질 특성은 습지와 압력돔이 공존하는 구조다. 물을 가둘 수 있는 치밀한 용암구조인 빌레용암이 만들어낸 습지와 암석이 조각조각 깨져있는 압력돔 지형은 유사성을 찾기 힘들어 보이나 둘 다 점성이 낮은 용암에서 볼 수 있는 지질 특성이다.

다른 꽃자왈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러한 지질 특성은 종 다양성과 함께 희귀식물 보고라는 지위와 명성을 갖게 했다. 선홍꽃



에서 관찰된 관속식물은 73과 138속 166종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중 양치식물은 8과 11속 12종이 나타나며 겉씨식물은 1과 1속 1종, 외떡잎식물은 13과 26속 28종, 쌍떡잎식물은 51과 100속 125종이 출현하고 있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2015).

지금까지 꽃자왈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식물은 8종이다. 이 가운데 세계에서 선홍꽃이 유일한 자생지인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대홍란, 순채, 으름난초, 개가시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선홍꽃이다. 단일한 지역에서 이처럼 많은 희귀 식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선홍꽃이 갖는 생태적 가치를 드러내고도 남는다. 이러한 생태계 다양성과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동백동산(0.59km²)은 2010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학교림 동백나무의 수난(受難)사

1947년 7월 2일자 제주신보(제217호)에는 ‘학교림에까지 빠치는 모리배의 마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 개인의 사복을 채우기 위하여는 사회도 국가도 생각치 않는 악독한 모리배의 躍動(약동)은 容怒(용노)할 수 없는 것인데 본도 조천면 선흘리에 이러한 不祥(불상) 사실이 있어 일반으로 하여금 분개를 사고 있다. 선흘리는 不過(불과) 4, 5백호에 지나지 못하는 산간부락으로써 同里(동리) 국민학교 운영상 선흘 밀림 512정보를 학

교 후원회에서 기증바더 관리하여 왔든 것이다. 이 밀림은 세인이
아는 바와 갓이 동백나무이 5할 이상으로써 椿油遂出(춘유수출)이
귀중한 천연자원이고 여기서 생산하는 年産額(년산액)은 약 50만원
에 달하는데 同里에서는 학교 운영난으로, 1944년 4월에 同里에 본
적을 두고 제주읍에 거주하는 木炭(목탄)업자 夫 某(부모)에게 該
(해) 학교림 立木(입목) 중 동백나무를 제외한 잡목을 2만 5천원에
매도하였든 것이다. 그런데 夫 某는 계약을 위반하고 본도의 귀중
한 자원인 동백나무를 모조리 도벌할 뿐더러 벌채기일이 경과 한
지 오랜 오날에 이르러서도 난벌을 계속하고 있어 그 謀利額(모리
액)은 무려 5백만원에 달하리라는데 이러한 악질행위에 리민은 분
개하여 불법행위를 추궁함과 동시에 도벌을 중지시키자 전기 부는

교활하게도 山林課員(산림과원)을 대동하여 리민들을 공갈 협박 등
의 가증할 행위를 취하여 사복을 채우려고 악덕한 행위를 계속함으
로 리민들은 경찰당국에 이를 고소, 방금 검찰청에서 취조하고 있
다는데 이와 갓지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는 자기 마을도 자기자식
의 교육도 돌보지 않는 비양심적 악질 모리자에게는 당연히 鐵槌
(철퇴)를 내리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갈등은 4·3 당시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선흘곶 벌채와 관
련한 보복으로 부씨 2인 등 3명이 산사람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건
이 생기면서 마을은 흉흉해지기 시작한다. 선흘리는 변변한 사상이
나 토벌대의 주목을 받는 무장대의 주모자급 인물이 한 명도 없는
마을이었다. 하지만 선흘곶 벌채와 관련한 마을의 알력은 많은 젊
은 청년들을 마을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동백나무 수난

지금도 동백동산 내에 81.62㎢의 학교림이 존재하고 있다. 이 학
교림은 1937년 선흘간이학교 설립 초기에 고백송 님께서 학교 재정
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기부한 토지이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자손들

선흘2리 해발 456.6m의 거문오름 말굽형 분화구에서 분출된 용
암류들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 북동쪽 방향으로 해안선까지 도달
하면서 뽕뒤굴,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
동굴, 당처물동굴 등 20여개의 많은 용암동굴을 발달시켜 세계자연

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이루고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다 보니 용암의 양이 많이 흐른 곳과 적게 흐른 곳이 발생하기도 한다. 용암동굴내를 흐르는 용암의 양이 적게 흐른 곳의 용암은 빨리 굳다보니 용암이 동굴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막장이 만들어져 소규모의 용암동굴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소규모의 용암동굴들은 연장성을 확인할 수 없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가 선흘1리 동백동산에 분포하고 있는 소규모의 용암동굴인 반못굴, 대섭이굴, 그리고 목시물굴 등이다. 대부분 입구와 끝이 무너져 있으며, 동굴의 연장 길이는 수m에서 수십m이며, 높이는 수십cm에서 수m로 동굴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인다. 소규모의 용암동굴이지만 용암동굴의 특징들을 잘 보여준다. 용암동굴의 천장에서 나타나는 용암종유, 용암동굴의 벽면에서 나타나는 용암유석과 용암유선이 나타난다.

▲반못굴(도틀굴)

선흘1리에서 남동방향으로 이어지는 동백로(선흘-덕천 간 도로, 1136번도로인 중산간도로에서 동백로가 만나는 지점, 묘산봉관광지로 내려가는 삼거리 즉 선유로와 만나는 삼거리) 해발 160m에 위치해 있으며 동굴의 길이는 약 50m, 주 유동방향은 북북동방향이다.

2003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 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는 동굴이다. 동굴은 대체로 협소한 편이나 구조가 복잡하고 가지굴과 2층굴 발달이 잘 되어 동굴환경과 동굴생물의 서식 조건이 대단히 양호하다. 동굴의

입구는 함몰형이며 규모는 1m내외이다. 동굴 내부에는 용암폭포, 승상용암(새끼줄구조), 아암용암, 용암주석, 용암석순 등이 산재하며, 또한 용암종유와 동굴산호, 용암곡석 등도 관찰되고 있는 곳으로서 보존을 위해 동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선구조, 동굴바닥은 아아용암으로 되어 있고 동굴의 양쪽 벽면은 파호이호이 용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 동굴에는 4·3사건 당시 피신했던 주민들의 흔적과 유품들이 발견되었다.

▲대섭이굴

선흘1리에서 남동방향으로 이어지는 선흘-덕천 간 도로상 해발 160m에 위치해 있으며 동굴의 길이는 약 120m이고 주 유동방향은 북북서 방향이다.



대섭이굴의 튜브 인 튜브

2003년도 문화재청이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는 동굴이다. 동굴의 입구는 함몰형이다. 동굴 내부에서는 용암선반, 승상용암, 아아용암, 용암주석 등이 산재하며, 또한 용암종유와 동굴산호, 용암곡석 등도 관찰되고 있다. 또한 투물러스, 튜브 인 튜브, 새끼줄구조 등의 용암동굴의 형성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두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보존관리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4·3사건 시 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대피했다는 기록이 있다.

▲목시물굴

선흘1리에서 남동방향으로 이어지는 선흘-덕천 간 도로상 해발 160m에 위치해 있으며 동굴의 길이는 약 100m이고 동굴의 주 유로 방향은 북북서방향이다.

2003년 문화재청이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 조사’ 결과 문화재 보존 가치가 인정되어 보존 관리하고 있는 동굴이다. 동굴의 입구는 함몰형이며 규모는 약 1m내외이고 동굴내부에는 용암선반, 승상용암, 아아용암, 용암주석 등이 산재되어 있으며, 용암종유와 동굴산호, 용암곡석 등도 관찰되고 있다. 목시물굴은 4·3사건 당시 지역주민들이 피신처로 이용하다가 몰살을 당하는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민들과 함께 4·3의 아픔을 함께한 선흘곶 용암동굴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으로 출향했던 재일제주도민들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면서 입도하자 제주도의 인구가 증가하여 식량난과 실직난을 겪게 되었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반대(單選單政反對)를 기치로 내걸고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禁足地域)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인 제주4·3사건이 발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48년 10월 17일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인 소개령(疏開令)이 발표되고 10월 19일에는 제주와 육지와와 뱃길을 차단하였다. 제주도의 대부분 중산간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마을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흘의 경우 1948년 10월21일(음)경에 소개가 된다. 집들이 소각되자 주민들은 선흘리 본동을 피해 떠났다. 일부는 북촌, 그리고 일부는 함덕 등지로 연고를 찾아 떠났지만 선흘리인 경우 많은 주민들이 인근 선흘곶의 밀림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 이유는 소개를 내릴 연고가 없기도 하였지만 잠시 피신해 있으면 금방 진정되리라는 예측과 가을철에 수확한 많은 곡식들을 놔두고 떠나기 아까웠기 때

문이었다.

특히 천혜의 피난 요새지역인 선흘곶이 인근에 있어서 수확한 곡식을 두고 다른 마을까지 내려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 소개 당시에도 나이가 든 몇몇 주민이 희생되는데, 연로한 노인들은 그대로 마을에 남아 있다가 군인토벌대에게 피살되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비상식량을 짊어지고 선흘곶을 피신처로 삼아 숨어들었다.

선흘리에 있는 대섭이굴, 도틀굴, 목시물굴, 뽕뽕디굴처럼 곳자왈이나 곳자왈에 있는 동굴과 궤는 지역 주민들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을 숨어살던 곳이다. 가족과 짐마저 버리고 짐승처럼 숲과 동굴로 숨어들어갔으나 토벌대의 총칼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아픈 기억만 남겼을 뿐이다.

선흘곶에도 4·3의 처참했던 학살이 일어났다.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일대에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벌어지자 이를 피해 주민들이 도틀굴, 목시물굴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은 25일에 도틀굴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발각돼 학살을 당했고, 26일에는 목시물굴에 있던 40명이 목숨을 잃었다. 도틀굴과 목시물굴에서 가까스로 몸을 피한 주민들이 뽕뽕디굴에 숨어 있었는데 27일 토벌대에 들키면서 한꺼번에 25명이 동굴에서 끌려나와 총살을 당했다.

2009년 11월 15일 산 22번지 반뫓에서 '선흘리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선흘리 제주 4·3 희생자 위령비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선흘리 4·3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을 열었다. 선흘리는 제주 4·3 당시 양민 216명이 희생되었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3.3m 높이의 위령비엔 '4·3희생자위령비'라는 글귀가 한자로 새겨

져 있다. 위령비 왼쪽에는 선흘리 희생자 명단을 적어놓은 비가, 오른쪽에는 김관후 시인의 '선흘곶에 우는 새'라는 시비가 세워졌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동백동산 람사르습지를 확대해야

선흘1리에는 100여개의 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선흘1리 주민들은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까지는 동백동산 부근의 음용수를 이용하며 살아왔다. 동백동산의 습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 양서류가 서식하는 생명수이다. 이곳의 습지에는 제주도롱뇽, 산개구리, 누룩뱀, 유혈목 등이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순채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자란다는 제주고사리삼도 자생하고 있다. 이들 습지가 있었기에 선흘리 주민들은 손쉽게 물을 얻을 수 있었으며 현명한 이용을 하여 온 결과 2011년 람사르(Ramsar) 습지로 인정받아 보호되고 있다.

람사르 협약은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 부른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생태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습지들이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매립과 오염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1960년대에 들어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의회는 물새 서식지인 습지가 파괴되고, 이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자 습지 훼손을 저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람사르 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람사르 협약에서 정의한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높, 늪지대, 이탄 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겐 간조 시에 수심의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람사르 협약에서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물새라 정의하고 있다.

람사르습지 선정 기준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 새서 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이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습지 중 23개 습지가 람사르습지에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제주도에는 5개인 물영아리오름 람사르 사이트(33°22'N 126°41'E), 물장오리오름 습지(33°24'N 126°37'E), 1100고지 습지(33°21'N 126°28'E), 동백동산(33°30'N 126°43'E), 숨은물뱅디 람사르 사이트(33°21'N 126°26'E)가 등록되었다.

동백동산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 외에 크기는 수m에서 수십m 크기의 소규모 습지들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 내에 분포하고 있는 습지에는 강뭇(남쪽입구), 개뿔은물, 퀴수산전물, 도틀물, 먼물각(큰물), 먼물각(작은물), 무영1(영화 '지슬'촬영지), 무영2(퀴수산전쪽), 새로관물1, 새로관물2, 새물(양동장안), 애기구덕물, 어둔계개우물, 엉덕물, 옷새물(논), 옷새물, 줄렛물, 흑통, 홍우관물 등이 있다. 이 습지는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동·식물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인간도 음용수로서 현명한 이용을 해 왔다.



제주고사리삼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은 다양한 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신이 준 선물이다.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 곶자왈이 매우 광활하게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구역 내 선흘리 산12번지(임야, 59ha)만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동백동산에는 다양한 습지식물과 상록수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있다.

이 중에는 전세계에서 1속 1종으로 제주도 선흘리 동백동산에만 자라고 있는 제주고사리삼이 제주도 생태계의 버팀목으로 자라고 있다. 세계적으로 1속 1종 밖에 없는 가치가 높은 식물이 자라고 있는 습지가 더 넓은 면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만을 지정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곶자왈지대 내



용암의 바다

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까지 확대하여 람사르협약의 목적에 알맞게 한번 훼손되면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관계 당국에서는 습지 자원을 보존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

용암의 바다 동백동산

천연기념물 제444호로 지정된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거문오름곶 자왈용암류는 분화구 일대에 거대한 함몰지와 협곡을 만들며 북쪽으로 흘러 알밤오름과 북오름의 사이를 지나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에 분포하고 있다.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선흘 곶자왈은 두께 2m미만의 얇은 용암류가 여러 겹으로 누적되어 있고, 상하부에 클링커의 발달이 없으며, 언덕 형태의 지형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동백동산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용암대지 위에 수m 높이를 가진 중·소규모의 언덕들인 투물러스가 분포하고 있으며 투물러스 사이에는 투물러스의 마루 부분보다 아래로 곡 지형에 해당하는 곳에 함몰구와 계곡지형들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언덕 형태의 지형인 투물러스는 용암이 흐르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용암이 팽창하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투물러스는 파호이호이 용암이 평탄한 지형을 흐르다가 하류로 배출이 잘 일어나지 않고 정체된 경우에 용암이 팽창하면서 만들어진다.

투물리스의 지형은 대부분 20° 미만의 완만한 경사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간혹 50° 이상의 경사로 높게 솟아오른 곳도 있다. 이들 투물리스 지형은 경사 각도에 상관없이 솟아오른 정상부에서 대부분 3갈래 방향으로 쪼개짐이 나타나는데, V자의 썰기형으로 갈라진 함몰대가 만들어진다. 언덕 형태 투물리스의 솟아오른 정상부에 V자형으로 갈라진 틈은 아직 굳어지지 않은 용암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상승하여 이미 굳은 용암의 표면이 주로 3갈래로 쪼개지면서 생긴 V자형의 절리가 만들어진다. 이들 V자 썰기형 함몰대의 연장 길이는 수m에서 수십m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함몰대의 내부에는 비어있거나 투물리스의 정상부에서 쪼개져 흘러내린 암괴들로 채워지기도 한다.

또한 언덕 형태의 투물리스의 경사면에서는 종종 새끼줄 혹은 빗줄구조(ropy Structure)나 치약구조(Toothpaste Structure) 등을 관찰할 수 있으며 다각형에서 육각형 모양의 거북등 절리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들 절리는 단면상에서 주상절리의 형태를 나타낸다. 새끼줄구조는 파호이호이 용암의 표면에서 주로 만들어지는데, 언덕 형태의 투물리스 경사면뿐만 아니라 지표면과 용암동굴의 바닥면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새끼줄구조는 먼저 식은 용암의 표면이 내부로부터 공급되는 용암의 흐름에 의해 전단력을 받게 되어 유동방향으로 흐르면서 휘어진 구조로 마치 와이파이 모양을 가진다. 새끼줄구조가 만들어는 용암의 점성이 높아지게 되면 마치 치약을 짜낸 모습과 같은 형태를 띤 치약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언덕 형태의 투물리스 경사면에 발달한 절리는 용암이 식으며 발생한 수축 작용에 의해 거북등처럼 발달된 것이다.

주상절리 형태의 틈 사이의 간격은 투물리스의 규모에 관계없이 썰기의 규모나 밀려난 정도에 따라 수cm에서 수십cm까지이며, 절리대를 따라 떨어져 나온 암석은 완경사면에 불규칙한 형태로 흩어져 분포한다. 절리대의 틈은 오랜기간 동안 식물뿌리의 부피생장과 길이생장에 의한 풍화작용과 기후에 의한 동결파쇄작용 등을 거치면서 점점 벌어지면서 암괴들이 떨어져 나간다. 투물리스에서 떨어져 나온 암괴의 형태는 모서리가 각진 사각형에서 육각형의 구조를 띠고 있으며, 비슷한 크기의 각력들이 모여있다. 이러한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저지대에 모인 암괴들은 매우 서서히 이동하면서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다.

완만한 용암대지 위에 수m 높이를 가진 중·소규모의 언덕들인 투물리스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투물리스 사이의 낮은 지형에 물이 고여 습지를 이룬 가운데 투물리스에서 떨어져 나온 각력상의 암괴 표면에 이끼를 비롯한 모든 생명을 품어 안은 것이 ‘용암의 바다’이다. 숲속 생명의 원천 용암의 바다는 전세계에서 제주가 원산지인 제주고사리삼을 자라게 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었다.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처

자연생태자원 | 동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팔색조

선홍1리는 선홍동백꽃자왈을 보유하는 마을로, 생태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다. 제주의 꽃자왈은 독특한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굴자원, 지하수함양의 근원지, 독특한 식생분포와 야생동물의 안식처로 인식되면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제주의 육상태계가 해안조간대, 농경지-곰솔림, 꽃자왈-상록수림, 오름과 초지대, 낙엽수림대, 침엽수림대-아고산대 지역으로 이어지는데,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꽃자왈은 관목류와 상록 교목류가 우거진 곳으로 야생조류를 비롯하여 양서류충류와 포유류의 안전한 서식처가 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롱뇽, 맹꽂이, 팔색조, 긴꼬리딱새의 번식지로 야생동물의 피난처이다. 선홍동백동산은 지방문화재,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 명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선홍동백동산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선홍꽃자왈을 찾아와, ‘호이호잇. 호이호잇’하고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는 새가 팔색조이다. 사람이 접근하면 울음소리를 내지 않을 정도로 민감하고 예민하다. 등지도 주변 환경과 은폐되도록 위치 선정이나 재료 선택이 탁월하다.

팔색조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희귀한 여름철새로, 꽃자왈과 한라산 계곡이 최적의 번식장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29종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팔색조, 푸른날개팔색조 2종이 보고되어 있다.



팔색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먹잇감으로 지렁이를 좋아한다(사진: 김기삼).



팔색조는 꽃자왈이나 계곡에 둥지를 틀며 위장술이 뛰어나다.

암수 모두 같은 빛깔이다. 등과 날개는 녹색이고 어깨와 윗꼬리덮깃은 코발트색, 꼬리는 검은색이다. 날 때에는 눈에 띄는 날개의 흰색 무늬가 선명하다. 배는 중앙에서 아래꼬리덮깃까지 붉은색이며, 가슴과 옆구리는 크림색이다. 머리 꼭대기는 갈색이고 먹은 흰색이다. 폭 넓은 검은색 줄이 눈을 지나 윗목까지 뻗어 있다.

여덟 가지 색(적, 갈, 흑, 백, 녹, 황백, 옅은 노란색, 하늘빛)을 가지고 있어 '미의 극치'를 상징하기도 하며 서구에서는 '무지개 색깔의 선녀'라고도 불린다. 깃털이 화려하여 천적으로부터 위험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깃털색을 보면 아주 뛰어난 보호색을 지니고 있고 특히 배 아래쪽의 빨간색은 경계심을 주기도 한다.

보통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식생이 발달한 섬 또는 내륙의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이나 활엽수림의 밀림에서 번식하며 바

위틈이나 바위 위 또는 교목 줄기의 두 가닥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 때가 많다. 주로 땅위에서 생활하면서 곤충류를 잡아먹으며 특히 번식기 때는 어린 새끼에게 주로 지렁이류를 물어다 준다.

팔색조는 해발 100~800m 지대에서 분포하며 300~500m 지점의 계곡 산림에서 가장 많이 번식하는 경향이 있다. 팔색조가 계곡 산림의 상록활엽수림을 선호하는 것은 습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렁이가 많고 은신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을 낳는 시기는 5~7월이며 보통 9~10월경에 월동지로 떠난다. 전 세계적으로 2,500~10,000여 마리가 생존해 있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는 긴꼬리딱새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이며, 환경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희귀종이다. 선홍꽃자왈 습지 주변에서 쉽게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먼물각 습지에서 목욕하는 장면도 확인된다.



긴꼬리딱새의 어미 암컷(왼쪽)과 새끼(사진: 김기삼).



긴꼬리딱새의 수컷은 꼬리가 길며 멸종위기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사진: 김기삼).

새들은 저마다 특이한 몸 구조와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머리에 땡기를 갖고 있는 해오라기, 밥주걱과 같은 부리를 가진 저어새, 무지개 색깔을 지닌 팔색조, 앞가슴에 진한 빨간색 손수건을 두른 진홍가슴이 대표적이다.

숲새 중에 꼬리가 무려 30cm 에 가까울 정도로 긴 꼬리를 가진 새가 있는데, 바로 긴꼬리딱새. 일본에서는 몸 생김새와 달리 ‘삼광조(三光鳥, 산고우조)’라 부른다. 어떻게 해서 그런 특별한 이름이 붙여졌을까. 새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행동, 먹이, 울음소리, 색깔, 사는 곳, 몸의 크기와 생김새(부리, 꼬리, 다리, 날개 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삼광조는 울음소리 때문에 지어진 것이며, 일본에서 건너온 이름이다. 울음소리가 ‘쯔키히오시(月つき, 日ひ, 星ほし, 하늘의 세 빛), 호이,

호이, 호이’처럼 들린다하여 붙여졌다.

2009년 한국조류학회에서는 이 새가 딱새과(科)에 속하고 긴 꼬리를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식 대신에 우리말인 긴꼬리딱새로 이름을 바꿨다. 영어 이름(Black Paradise Flycatcher)은 몸 색깔과 습성에 보고 지어졌다. 검고 긴 꼬리를 달고서 날아다니면서 곤충류를 잡아먹는 환상적인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암수 모두 머리와 앞가슴은 자주색을 띤 검정색을 띠며, 짧은 땡기를 가지고 있다. 부리와 눈 테는 푸른색이고, 배는 흰색이다. 날개와 등은 갈색을 띠며, 수컷이 암컷보다 진하다. 수컷의 꼬리는 검고, 암컷은 갈색이며, 보통 암컷의 꼬리는 수컷의 3분의 1정도인 8cm쯤 된다.

이 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동남아시아로



긴꼬리딱새는 이끼와 거미줄을 이용하여 둥지를 튼다.

내려간다. 봄철 이동 시기에는 주변 유무인도를 비롯해서 해안 저지대의 곰솔림, 도심지 숲 공원에서도 관찰된다. 둥지는 가는 Y자 나뭇가지에다 틀며, 나뭇잎, 사초과 줄기, 나무껍질, 이끼 등을 이용하여 작은 컵 모양으로 만들며, 둥지와 나뭇가지는 거미줄로 묶는다. 보통 둥지의 위치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의 나무를 선택하며, 큰 나무에 감아 올라간 칩덩굴이나 청미래덩굴 줄기에도 트는 경우가 있다.

알은 5~6월에 3~5개 정도 낳으며, 알을 품은 지 13일 전후로 부화한다. 암수가 함께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운다. 처음에는 애벌레를 물어다주며, 점차 성장하면서 나비, 나방, 잠자리와 같은 어른벌레를 잡아다 준다. 작은 둥지에서 서너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모습이 제법이며, 부화한 새끼는 10일 정도면 둥지를 떠난다.

새끼들이 둥지에서 나올 쯤에는 먹이를 곧바로 주지 않고 둥지 옆 가지에 앉아서 새끼들이 둥지에서 나오도록 유인한다. 새끼들은 곧바로 비행하기가 어렵지만, 가지 위를 걸어가면서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먹으며, 날개짓을 연습하다가 비행에 성공한다. 다 자란 후, 먹이를 잡을 때는 높은 가지에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곤충을 쥘싸게 낚아채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공중에서 정지 비행해서 잡는 습성이 있다.

하얀 눈 테가 선명한 동박새

하얀 눈이 내리는 날, 하얀 눈 테가 뚜렷한 동박새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하얀 눈발에서 녹색의 동백나무 잎, 붉은색의 동백꽃, 노란색

의 꽃가루 그리고 동백꽃꿀을 빨고 있는 연한 녹색을 띠는 동박새가 한데 어우러져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동박새는 제주어로는 ‘돛박새’라 하며, 돛박은 동백나무의 열매를 가리킨다. 돛박이 맺기까지 암꽃으로 수꽃의 꽃가루를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새가 동박새와 직박구리이다.

수분(꽃가루받이)이란 일반적으로 꽃밥의 꽃가루를 암꽃의 암술머리로 옮기는 과정인데, 동물의 번식과정과 같다. 동물의 번식은 암수 개체들의 활동에 의존한다. 짝짓기를 위해서 암수는 상대 배우자를 찾아 걷거나 기거나, 헤엄치거나, 날아가거나 한다. 식물의 경우도 암수의 만남이 필요하나 수꽃이 암꽃으로 직접 이동하지 못한다. 어떤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해 주는 에이전시(agency)가 요구되는데, 이 에이전시가 수꽃의 꽃가루를 암꽃의 암술머리로 전달시켜준다. 인위적으로 수분을 유도하기도 하나, 자연 상태의 수분 매개체로는 바람, 물, 곤충, 새, 박쥐 등이 있다.

동박새가 동백나무의 한 꽃에서 꿀을 빠는 과정에서 부리와 이마에 꽃가루가 묻히게 되고 다시 이 동박새가 다른 꽃에서 꿀을 빨 때 이미 묻혀 있는 꽃가루가 암꽃의 암술머리로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것이다. 대개 새에 의해 수분이 이루어지는 식물의 꽃은 관모양, 컵모양, 단지모양을 이루며 화려한 색깔, 많은 꽃가루와 꿀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꽃꿀을 빨아먹는 새들은 벌새, 태양새, 꽃꿀발이새와 같은 새로 주로 열대 지방에서 볼 수 있다. 부리의 모양이 꿀을 빨기에 유리하도록 길고 가는 것이 특징이며, 동박새를 유심히 보면 그런 특징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동박새는 94종이 분포하며, 눈 테가 하얀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한국에는 한국동박새와 동박새 두 종이 분포하며, 최근 동박새 아종인 작은동박새가 제주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박새는 주로 한국, 일본, 중국, 일부 동남아 지역에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이동하는 집단도 있다.

제주의 동박새는 화산섬에 고립된 텃새로 인가와 정원에서부터 꽃자왈과 한라산 낙엽활엽수림대까지 분포한다. 비번기에는 10~30마리씩 무리를 지어 옮겨 다니며 특히 꽃자왈이나 도심지 공원에 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장거리 이동보다는 짧은 거리를 반복해서 이동하는 경향이 많으며 날면서 또는 나뭇가지에서 이동하면서 운다. 점차 벚꽃이 필 무렵이면 무리 생활에서 벗어나 암수가 짝을 맺기



동박새는 흰색의 눈 테와 녹색빛의 몸 깃털색이 선명하며 왕벚나무와 동백나무 꽃꿀을 좋아한다.

시작하며 번식기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한다. 다른 산새들과 마찬가지로 번식기에 울어대는 수컷의 울음소리는 번식기와는 사뭇 다른 노랫소리를 낸다. 알은 5~7월에 4~5개정도 낳으며 둥지는 두 가닥으로 된 나뭇가지에 작은 컵을 매단 것처럼 틀며, 보통 관목림, 곰솔림 특히 감굴나무에도 만든다. 먹이는 주로 곤충류이지만, 곤충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겨울철에는 꽃꿀을 많이 찾는다.

꽃자왈 습지에서 달콤한 휴식을 보내는 원앙

매년 겨울철에 원앙이 조천읍 일대의 꽃자왈 내 습지와 크라운컨트리클럽 골프장 연못에서 월동한다. 천연기념물인 원앙은 국내에서는 한라산 내의 계곡과 꽃자왈이 최대 월동지로, 주요 월동지는 도토리 열매가 풍부한 광령천, 한천, 선녀폭포, 강정천, 창고천, 효돈천, 신례천 등의 계곡과 조천읍 일대의 꽃자왈 지역이다. 원앙



원앙은 암수 깃털색이 뚜렷하며 수컷이 더 화려하다.



원앙은 무리를 지어 꽃자왈 내의 습지나 계곡에서 겨울을 보낸다.

의 수컷은 부리가 붉고 흰 눈썹선과 셋째날개깃의 주황색 부채 모양이 선명하다. 암컷은 갈색이며, 눈썹선이 가늘다. 원앙은 동아시아권 내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종으로 물가가 있는 내륙 숲속 활엽수의 나무 구멍을 이용하여 번식하나, 제주에는 주로 겨울에 찾아온다. 원앙은 야행성 조류로 낮에는 사람의 출입이 적고 물이 고여 있는 습지나 계곡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가 지면 곧바로 참나무류가 많은 숲으로 이동해 도토리 열매를 주워 먹는다. 집단 무리는 겨울에 관찰되지만, 원앙의 번식기인 여름철에도 소수가 제주 산간 계곡에 머물기도 한다. 꽃자왈 내의 먼물깎이나 밝은못 주변의 암반 위를 보면, 원앙의 배설물이 널려 있으며, 크라운컨트리클럽 골프장 연못에는 1,000여 마리가 월동한다.

한편, 선홍동백꽃자왈 내의 먼물깎을 비롯하여 주변의 반못, 높은물 등의 습지에서는 원앙 이외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의 오리류와 중대백로, 왜가리, 중백로, 황로, 해오라기, 검은맹기해오라기, 덩불해오라기 등도 확인된다.

먼물깎 습지에서 산란하는 제주도롱뇽

우리나라에는 이끼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도롱뇽, 제주도롱뇽, 꼬마도롱뇽, 고리도롱뇽 등 6종이 분포하며, 제주도에만 서식한다. 도롱뇽은 경기, 강원, 충청, 영남 등 우리나라 중남부에서 폭넓게 확인되며, 제주도롱뇽은 호남과 제주도에 국한하여 분포한다. 과거에는 두 종을 아종 관계로 구분하였는데, 분포, 외부형태, 유전염기서열 등의 연구과정을 거쳐 지금은 도롱뇽(*Hynobius*

leechii)과 제주도롱뇽(*Hynobius quelpaertensis*)으로 독립되었다. 두 종 간의 차이는 육안으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거의 비슷하며, 서식 환경에 따라 개체 변이도 심한 편이다. 제주도롱뇽은 1928년 일본인 학자 모리(森爲三, Tamezo Mori)가 제주도에서 채집한 표본을 한국 특산종이라고 기재한 데서 출발했다.

제주도롱뇽은 11월에서 1월 사이에 겨울잠을 자는데, 날씨와 수온 조건에 따라 12월에도 산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통 꽃자왈 습지, 계곡, 목장 내 습지, 농경지 습지 등에서 볼 수 있다, 집중적으로 산란하는 시기는 2~3월이다. 산란 초기에는 한두 쌍이 산란하지만 본격적으로 산란할 때는 수십 쌍이 엉켜 붙어 있다. 1월 초에 산란된 알은 간혹 꽃샘추위에 희생되기도 하지만, 3월에 산란한 개체는 수온이 높은 상태라 빠르게 발육하기 시작한다.



제주도롱뇽은 제주도와 호남권에 국한하여 분포하는 한국특산종이다.

보통 낮에는 물가 주변의 돌 아래와 쓰러진 고목에 있다가, 주로 밤에 먹이활동을 하거나 산란하는 경향이 있다. 체외 수정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암컷과 수컷의 협동 행동이 중요하다. 수컷이 먼저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어 진동을 일으키면, 암컷이 수컷이 있는 나뭇가지에 알주머니를 낳는다. 수컷은 바로 알주머니를 끌어안고 정액을 방출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수컷들이 나타나 경쟁하기도 하며, 집단을 이루기도 한다. 두 가닥의 도롱뇽 알주머니는 물 흐름에 쓸려가지 않도록 바위나 나뭇가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바닥에 그대로 가라앉아 있다.

산란 이후에는 어미는 물 밖으로 나와 거미, 지렁이, 곤충 등의 먹이를 찾아 낙엽층을 뒤진다. 따라서 알의 부화 성공율은 어미의 보살핌보다는 수량과 수질에 따라 좌우된다. 오염물질이 습지로 유입되면 알이 부패하며, 폭우에 알이 쓸려가거나 가뭄으로 인해 알이 말라죽는 경우가 많다. 인가 주변의 하천이나 계곡 하류에서 도롱뇽을 볼 수 없는 것은 물의 오염원과 관련 있다. 이번에 확인된 제주도롱뇽 알의 부패도 소왕천의 수질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의 꽃자왈과 계곡 습지는 제주도롱뇽의 최적 산란지이다. 제주도롱뇽의 이동 범위가 좁고 수질과 수량이 양호한 곳이 제한적 이어서, 산란지 내에 제주도롱뇽의 개체군 변화와 오염원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한편, 먼물각 습지에는 한국특산종 제주도롱뇽을 이외에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맹꽂이, 참개구리, 산개구리 등이 서식한다. 특히 맹꽂이는 환경부 멸종위기 보호동물로 장마철이나 여름철 폭우가 내리는 날에 꽃자왈 내 물이 고이는 곳에 집단으로 산란한다.

다양한 식생과 습지를 품은 마을

자연생태자원 | 식물

선흘곶의 식생

선흘1리 곶은 동백동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 파호이호이용암으로 되어있는 곶자왈이다. 2011년 3월 랍사르습지에 등록되었다. 등록면적은 590,083㎡이다. 1981년 8월 26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에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한국학 중앙연구원. 제주 동백동산습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 습지는 최고지점과 최저지점의 표고가 155m와 90m인 용암류대지의 완사면에 위치한다. 이 일대에 15개가 넘는 습지가 있다.

이곳에 자라고 있는 나무는 71종인데, 이들이 여러 가지 조합으로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곽정인 외, 2013). 크게 구분해 보면 2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암괴 위에 형성된 상록활엽수 숲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토양층이 발달한 지역의 곶솔 숲이다.

이들은 생태학적으로 5개의 군집으로 되어있다. 그중 4개 군집이 그 구성하고 있는 종들이 다소 다르고, 구성 비율이 조금씩 다를 뿐

대체로 종가시나무, 동백나무, 생달나무, 구실잣밤나무 같은 상록 활엽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암괴들이 발달한 곳을 생육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백동산 식생의 특징은 가장 많은 나무인 종가시나무와 그다음으로 많은 구실잣밤나무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실잣밤나무가 압도적인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주도의 상록수림을 지배하는 종은 구실잣밤나무'라는 통념과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곳은 원래 구실잣밤나무숲이었으나 사람들이 지속 벌채 이용했었고, 그 후 천이가 진행되면서 새롭게 나타난 종



육박나무



남흑삼릉

거문오름의 식물





순채

가시나무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숲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식물들이 자란다. 희귀식물 순채, 거대하게 자란 육박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서만 자라는 남흑삼릉 등도 관찰된다.

동백나무가 많은 선흘곳

이곳을 대표할 수 있는 식물로 동백나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동백나무는 난대수종의 대표격이다. 그런데 제주도 내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한라산 남사면의 해발 600m, 북사면의 해발 400m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사면을 볼 때는 전체적으

로 분포하기는 하지만 선흘곳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래도 동사면에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동백나무가 없는 곳자왈은 없지만 서부 지역엔 드문 편이다. 이것은 수분 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조한 서부지역 곳자왈에는 매우 드문 대신 돈내코를 비롯한 한라산 남사면에서 동사면을 따라 선흘 곳자왈까지 매우 풍부하게 분포함을 볼 수 있다.

효돈천, 서중천 등 서귀포를 관통하는 계곡들과 표선과 성읍의 천미천 등 한라산에서 동사면에 이르는 지역의 하천에는 유난히 동백나무가 많다. 이것은 동백나무의 지리적 분포 특성을 보더라도 따뜻하면서 강우량이 풍부한 곳에서 다양한 종이 분화되었고 많이 분포한다는 점에 비추어 동백나무의 분포에는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사실 동백나무는 따뜻하기만 하면 그다지 환경을 가리지 않는 종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서해안으로는 백령도, 동해로는 울릉도



동백나무 숲

선홍꽃에 형성된 습지





동백나무

가 북한계다. 그 외로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해안에 자란다.

세계적으로 동백나무속에 들어 있는 종은 약 120종이나 된다. 우리나라에는 동백나무 1종이 분포하지만 일본에는 3종이 자생하고 있으며(Chung M. 2006; Makino T. 2000), 중국에는 무려 97종이 분포하는데 그중 76종이 고유종이다. 그 외에도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부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에 분포한다(Min T. and B. Bartholomew. 2007).

동백나무의 관상 가치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통적으로는 주로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경제적 가치 또한 높다. 이 기름은 ‘뽕박지름’이라 하여 머릿기름, 식용, 약용, 등불을 밝히는 데에도 쓰는 등 그 쓰임새가 아주 많았다.

선홍꽃은 유난히 동백나무가 많다. 이것은 산간오지에 살았던 이곳 주민들이 동백나무를 보호했던 것도 더욱 많아진 이유의 하나이다.

한국 신속 신종 제주고사리삼을 탄생시킨 선홍꽃

세계적으로 제주도 파호이호이 용암 위에만 자라는 식물이 있다. 제주고사리삼이라는 종이다. 이 식물은 우리나라 특산식물로서도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도 조천-선홍꽃자왈에만 분포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이경미 외, 2012).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곳은 해발 88~165m로서 원래 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종은 독특하게도 상록활엽수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낙엽수림에서 발견된다. 제주고사리삼은



제주고사리삼의 생장 형태(현화자 등(2014)에서 일부 수정)

언뜻 보면 지상부에 줄기, 잎, 포자낭줄기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모두 합쳐 하나의 잎이다. 이 식물의 지하에는 대략 50 cm에 달하는 길게 옆으로 뻗는 줄기가 있다. 이 지하줄기는 해마다 옆으로 뻗으면서 잎을 지상으로 낸다. 이것이 관찰 가능한 제주고사리삼이다. 이 지하줄기의 모양은 좀 더 복잡한데 엽흔이라고 하는 구조도 관찰할 수 있다. 잎이 해마다 새롭게 발생하였다가 탈락하는 과정이 몇 년 동안 반복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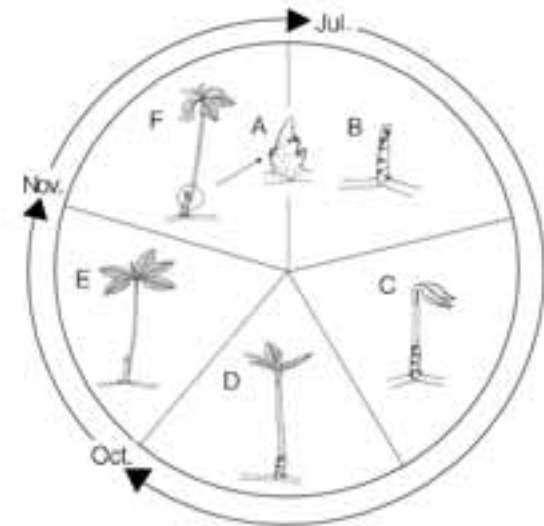
제주고사리삼의 계절적 생활사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그림 참조), ① 제주고사리삼의 잎눈은 근경의 끝부분에서 형성되어 초기에는 인편에 둘러싸여 있으며, ② 7월 말이 되면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③ 지상으로 나온 잎은 영양엽이 서서히 퍼지면서 포자엽과 형태적으로 분리된 후 9월 말까지 성장하였으며, ④ 잎의 생장이 끝난 후 포자가 성숙되면 포자낭에서 방출되기 시작한다. ⑤ 11월 이후에는 잎의 노화가 시작되고 이듬해 4월 이후에는 잎 전체가 시들어 없어진다.

이와 같이 제주고사리삼은 근경을 이용하여 번식하는 식물로 잎은 해마다 7월에 출현하여 이듬해 4월에 시들어 없어졌다. 제주고사리삼 잎의 발생과 성장, 노화 등은 자생지의 기온 및 강수량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자생지에 따라 잎의 발달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앞의 논문).

이 잎이 발생하는 계절이 이 자생지의 상층을 이루는 나무들, 그리고 이 자생지에 물이 고이는 시기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다. 즉 장마철이 끝나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7월 하순부터 이 잎은 돋기 시작한다. 그리고 9월 하순 대부분의 잎들이 나온다. 자생지가 마르

고 다른 나무들의 낙엽이 저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 왕성하게 광합성을 한다. 이후 12월 말부터는 낙엽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된 제주도 곳곳에 환경이 만들어 내는 생물진화의 독특한 메커니즘이다(앞의 논문).

제주고사리삼은 2001년 선병윤 등이 '한국 제주도에서 자라는 고사리삼과의 1 신속 만규아(*Mankyua*)'라는 제목으로 택손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Sun, B.-Y., etc., 2001). 사실 이와 같은 관속식물에서 새로운 속이 발견된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 분류학적 특성들을 공유하는 과내 종들의 집합이다. 제주고사리삼을 새로운 속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고사리삼과 내의 다른 종들과는 확연히 달라서 이 종이 들



제주고사리삼의 연간 생활사

어갈 만한 속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과’라고 하는 분류계급 내에 여러 속이 있을 경우 어느 일정 수준의 특성을 공유하는 것들을 모아서 ‘아과’를 설정한다. 제주고사리삼은 고사리삼과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사리삼과에 들어가는 종들은 112종이 알려져 있다. 이 종들은 10개의 속으로 묶을 수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바로 이 10개 속 중 1속이라는 것이다.

2013년 시노하라 와타루 등 8명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시스템아틱 보태니라고 하는 학술지에 주목할 만한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고사리삼과는 4개의 아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제주고사리삼

제주고사리삼은 단 1개의 종만으로 아과를 형성하여 제주고사리삼아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것은 제주고사리삼이라는 종은 같은 과를 구성하는 10개의 속들 내에서도 이질적이어서 별개의 아과를 형성했다는 것이다(Shinohara W., et., 2013).

최근 양치식물계통학연구자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 68개 연구기관에 소속한 95명의 관련학자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현존하는 양치식물의 분류’라는 논문이 작년도에 저널 오브 시스템아틱스 앤드 에볼루션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됐다(Pteridophyte Phylogeny Group, 2016). 이 논문에서 제주고사리삼은 당당히 1개의 종만으로 제주고사리삼아과, 제주고사리삼속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 1리

2. 역사문화자원

선흘1리의 옛 이름은 ‘선흘’[先屹·先屹·先屹·善屹]이고, ‘웃선흘’[上善屹], ‘알선흘’[下善屹]이라 하였다. 문헌상으로는 《탐라지》(17세기 중엽)에 ‘先屹’이란 지명이 처음 보인다. ‘흘’은 ‘숲·수풀’의 뜻으로 쓰이는 제주어로 곳자왈의 숲이 잘 보전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 선흘리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마을 이름에 용암지대와 와흘·대흘·선흘·금물흘로 이어지는 곳자왈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숲’과 ‘수풀’의 뜻이 담긴 마을 이름과 역사

설촌과 마을 역사

선흘촌의 등장

선흘1리의 옛 이름은 ‘선흘’[先屹·先屹·先訖·善屹]이고, ‘웃선흘’[上善屹], 알선흘[下善屹]’이라 하였다. 문헌상으로는 《탐라지》(17세기 중엽)에 ‘先屹’이란 지명이 처음 보인다. ‘흘’은 ‘숲·수풀’의 뜻으로 쓰이는 제주어로 꽃자왈의 숲이 잘 보전되어 있는 중산간 마을 선흘리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마을 이름에 용암지대와 와흘·대흘·선흘·금물흘로 이어지는 꽃자왈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함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에 제작된 《탐라도》에 ‘선흘촌(先屹村)’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건대, 조선중엽 선흘에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흘촌은 지금의 선흘본동인 ‘웃선흘’과 낙선동인 ‘알선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조선후기로 넘어가면서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자연촌의 증가로, 동·서·남·북 또는 중·좌·우 등의 방위 명칭을 가진 면제도가 등장에 따라서 모든 촌은 리(동)로 정비되어 갔고, 리는 면에 귀속되었다. 면리제가 제주도에 정착한 시기는 18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면리제의 정비와 더불어 18~19세기를 거치며 상속제의 변화, 향촌지배질서의 변화에 따라 제주도내에 동성마을(집성촌)이 형성되어 갔고, 마을(리·동)은 분화 과정을 겪었다.

18세기 후반 자료인 《탐라방영총람》에 ‘상선흘리(上先訖里)’라는 명칭이 확인되는데, 선흘촌이 면리제 정비에 따라 독립적인 리(里)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선흘촌(先屹村)과 과원(果園) 및 시려니오름[時連岳, 현재 검은오름]



로 바뀔과 더불어 상선흘과 하선흘로 마을이 나누어진 과정을 보여 준다. 18세기 중엽 제작된 <제주삼현도>에는 마을 명칭이 아직도 ‘선흘촌(先訖村)’으로 나온 것으로 보건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선흘리로 독립하고 상선흘리·하선흘리로 마을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26년 작성된 <감시절목>에 현재 지명인 ‘善屹(선흘)’이 처음 보인다.

《제주군읍지》(1899)에는 ‘상선흘리(上善屹里)’와 ‘하선흘리(下善屹里)’로 구분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거문오름(西巨文岳)과 지금의 선흘2리인 곡장동(曲場洞)도 표기되어 있다.

상선흘리와 하선흘리는 20세기 초에 와서는 하나의 리로 통합되



1872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알밤오름[下夜漢岳]과 선흘리(先屹里) 및 우진곶[芋長藪]



1899년에 간행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상선흘리와 하선흘리 및 서거문오름[西巨文岳]과 곡장동(曲場洞)



었다. 즉,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에는 신좌면 소속의 9개 리 가운데 ‘선흘리(先屹里)’만 확인되고 있다. 이 기록에는 선흘리가 고종 11년(1874) 이후 제주목 좌면에서 신좌면으로 속하는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삼군호구가간총책》(1904)에는 선흘리의 마을 규모가 연가 190호, 남 300구·여 294구·합 594구, 초가 481칸 정도에 달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의 폐합이 이루어질 때, 옛 선흘리 지역과 와산리 일부 지역을 병합해 제주군 신좌면 선흘리라 불렀다. 1929년 간행된 《제주도생활상태조사》에 따르면, 선흘리 호수(戶數)는 292호이며 남자가 595명이고 여자는 615명으로

남녀 합계가 1,203명이었다.

1919년 제작된 《제주지도》를 보면, 선흘1리에 해당하는 ‘선흘리(善屹里), 하선흘(下善屹), 장산동(長山洞), 대수동(大水洞)’ 등으로 표기한 마을 이름이 확인된다. 선흘리는 웃선흘인 선흘리 본동을 가리킨다. 하선흘(알선흘)은 웃선흘 마을 서북쪽에 있는 낙선동을 말한다. 장산동은 웃선흘 마을 동남쪽에 있던 ‘장산골’을 가리키는데 폐동하였다. 대수동은 알바메기오름 동쪽에 있는 ‘큰물’ 주위에 형성된 마을로서 지금의 목선동에 가깝다.

선흘촌에 들어온 사람들

선흘리 설촌 유래는 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온 내용을 들어서 서술한 예전 발간물(《선흘학구향토지》; 〈선흘리 학술조사보고〉)을 토대로 정리할 수 있다. 선흘리는 땅이 매우 비옥하여 오곡이 잘 되었으므로 주민의 생활이 윤택하여 큰 마을을 형성하였다. 먼저 700여 년 전 현씨가 웃바메기오름의 분지에 위치한 ‘선세미’라는 샘 주변에 거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후 16세기 말에 안씨가 웃선흘에 정착했고, 350여 년 전에는 김해김씨, 문씨, 허씨, 정씨, 안씨, 주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선세미’라는 샘은 현씨가 설촌 때에 개발하여 이용했다고 하여 ‘현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구개음화하여 오늘날에는 ‘선세미’라고 부르게 되었다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다.

낙선동 ‘병대왓’ 일대에는 오랜 집터들이 있어 기왓장과 고려자기 파편이 발견되는데, 속칭 ‘묵은가름’, ‘묵은터 동산’, ‘문구리집터’, ‘만

수집터’, ‘마감집터’, ‘장선달집터’, ‘당아진밭’, ‘당동산’ 등은 설촌과 연관되는 지명으로 보인다. 알선흘 셋가름은 ‘돛바령’이라고도 하는데, 설촌 당시에 멧돼지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선흘리는 조선시대 정의현으로 왕래하는 중심 행로였다. 제주목에서 정의현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이 숙박하는 동제원(東濟院)이 이 마을 남쪽 지경에 있었다고 한다. 선흘리 옛 지명을 보면, 병사들을 훈련시켰던 ‘병대왓’과 활을 쏘던 ‘사장밭’ 등이 보이는데, 마을 사람들이 군역에 동원되었던 흔적으로 보인다. 또한 풍년과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천신에 기원했던 ‘제석동산’이 있다. 특히 배를 만드는 나무와 관련된 지명으로서 알바메기오름 동쪽으로부터 본동까지 ‘배남넨밭’, ‘배남머르’, ‘배남빌레’, ‘배남터’ 등으로 속칭하는 지명이 있는데, 과거 선흘곳의 나무를 활용하여 각 포구의 전함과 어선을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중엽 이원진 목사의 《탐라지》 과원 조에는 선흘에 “유자나무 47그루, 치자나무 46그루, 비자나무 7그루, 윗나무 96그루, 닥나무 87그루, 동백나무 3그루를 기르는 과원(果園)이 있다.”고 하여, 제주목의 대표적인 과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18세기 초 이형상 제주목사의 《남환박물》에 선흘 과원이 기록되어 있고, 18세기 중엽의 〈제주삼현도〉에도 선흘촌 옆에 굴을 재배하여 조정에 진상하던 과원이 그려져 있는데, 이곳이 조선후기 굴 재배의 중심 마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웃선흘에는 안씨 가문이 먼저 자리를 잡아 정착하였는데, 16세기 말로 추정하고 있다. 순흥안씨 감찰공파의 입도조(入島祖)는 예조참의 안수도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 안이 어지러

위지자 안수도는 해주목사로 있던 그의 형 안상념의 도움으로 선편을 이용, 난을 피하여 아들 보상과 함께 제주 애월포에 낙향하게 된다. 그 뒤 안보상은 선흘촌으로 옮겨가 살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 손손 대에 이르러 다시 납읍촌에 정착하여 살았으며, 그 손자 의인에게 아들 세 형제가 있었으니, 만이 안홍국은 납읍촌에 머물러 살고, 둘째 안홍남은 다시 선조가 살던 선흘촌에 살았으며, 막내 안홍대는 표선면 가시리로 이주하여 각각 정착 생활의 토대를 닦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관리를 많이 배출한 마을

선흘리는 17세기 중엽에 납속(納粟)으로 관직을 얻은 안씨 집안을 중심으로 혼인을 통한 인척관계를 형성하며 과거 급제자 및 관직 진출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현종 5년(1664) 8월 제주시재어사 윤심이 제주에 와서 향시(鄕試)를 치를 때 선흘촌 낙선동에 거주하던 문징후가 급제하여 구례현감을 지냈다. 현재 낙선동 서남쪽 거리에 문징후의 집으로 보이는 ‘문구례 집터’라는 곳이 있는데, 기왓장들이 널려있다. 그의 중형 문영후는 똑같이 1666년 식년문과 진시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곡성현감을 지냈다. 문징후의 사위 김계중 또한 숙종 36년(1710) 향시를 거쳐 1739년 문과 정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전직 벼슬을 지냈다.

1765년 증호조참판 안씨의 아들 안상택이 무과에 급제하여 명월만호에 올랐으며, 1770년 경 고광현이 안상택의 사위로 본동에 정착했으며, 1795년 김후반이 낙선동에 정착하였다. 1786년 선흘리

출신 오점이 사마시에 응시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며, 무과에 합격한 장선달·김선달 등 무재들도 배출되었다. 1888년 7월 선흘리 출신 강인호가, 1892년 4월에는 안승관이 각각 제주판관에 부임하였다.

제주 향청에서는 선흘리 출신 안승작·고재용·부한점 등이 좌수로 봉직하는 등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다. 또한 선흘리 사람들은 제주 향교를 출입하여 훈장·도훈장·반수 등 많은 유림들을 배출하였으니, 선흘리를 양촌 또는 양반촌이라 일컬어 왔다.

유적과 유물

○ 선흘리 비석

선흘리사무소에 목사의 선정비 등 3기가 세워져 있다.

• 목사윤공구동청덕선정비(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앞면 중앙에 〈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라 음각되어 있고, 규모는 가로 40cm, 세로 67cm, 너비 13cm, 높이 72cm이다. 제주목사 윤구동은 순조 15년(1815) 5월에 부임하고 순조 17년(1817) 10월에 형조참의로 임명되어 떠났다.



목사윤공구동청덕선정비
(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재임 중 그는 공피전(供彼錢) 1천 8백 냡을 마련하여 다른 나라 배가 표착했을 때 공궤(供饋)하는 비용으로 비치했다가, 뒤에 환곡의 모조(還耗租) 1천 88석으로 바꿔서 창고에 보관케 하였다. 또 순조 17년(1817)에는 본도에 흉년이 들어 육지부 곡식을 옮겨서 도민을 구휼했는데, 이때 그는 환모조(還耗租) 2천5백 석을 미리 준비해 보관해 두게 하였다.

• 목사구공재룡거사비(牧使具公載龍去思碑)

앞면 중앙에는 <牧使具公載龍去思碑>, 뒷면에는 <道光辛丑十二月 日>이라 음각되어 있듯이, 도광(道光) 신축(辛丑), 즉 헌종 7년(1841) 12월에 세워졌다. 제주목사 구재룡은 헌종 5년(1839) 3월부터 헌종 7년(1841) 윤3월까지 재임했다. 헌종 6년(1840)에 구재룡 목사는 능전(廩錢) 5백여 냡을 내놓아 호적을 작성할 때 인구미(人口米)로 충당케 하였다. 정의현과 대정현의 수세곽(水稅藪)과 제주목의 일용곽(日用藪)을 혁파하였다. 다스림이 번거롭지 않고 부역을 가볍게 하고 취렴(聚斂)이 적었다고 하여, 주민들이 추모하는 뜻으로 거사비를 세웠다. 4·3사건 당시 총탄을 맞아 두 조각으로 쪼개졌던 것을 1960년대 구자춘 제주도지사의 선흘리 방문을 계기로 다시 보수해서 합쳐 놓았다고 전한다.



목사구공재룡거사비
(牧使具公載龍去思碑)

• 거사안창룡연시비(居士安昌龍捐施碑)

앞면에 <居士安昌龍捐施碑>, 우측에 <捐出土地 施恩一鄉>, 좌측에 <移作井池 何日忘之>, 뒷면에 <大正四年乙卯三月 日 先屹里人民>이라 하였다. 즉 안창룡이 토지를 내놓아 우물을 팔 수 있게 한 공로를 기린 송덕비이며, 1915년 3월에 선흘리 주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거사안창룡연시비
(居士安昌龍捐施碑)

신화와 전설

안판관과 고대정 신화

옛날 안동(安東) 땅에서 안씨 3형제가 들어왔다. 먼저 한라산에 올라 사방을 구경하고 내려온 것이 선흘(조천읍 선흘리) 이데기마루까지 내려왔다. 3형제는 정착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큰형은 과남(애월읍 남읍리)으로 가겠다 하고, 둘째 형은 가시오름(표선면 가시리)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작은 아우는 어디 마땅한 곳이 없어 서늘(선흘)에 그냥 머무르기로 하였다.

3형제가 살아갈 얘기를 하던 중 주걱 같은 귀가 달린 큰 뱀이 앞에 나타났다. 형들의 제안에도 꿈적하지 않았다. 막내는 뱀을 서늘(선흘) 배남마루 동백나무 밑에 와서 모시고 그 옆에 집을 지어 살았

다. 그로부터 작은 아우는 삼시에 부자가 되어 가고 대대로 자손에 벼슬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집안에서 제주판관이 나던 어느 해, 안판관은 제주성 안(제주시 내)에서 유명한 고씨(高氏) 심방을 불러다 굿을 했다. 고씨 심방은 선 홀로 올라가 큰 대를 세워 안씨 집안의 조상을 청해 놓고 한참 큰굿을 하고 있었다. 이때 안판관은 굿하는 옆에 앉아서,

“제주판관이 웬 판관이고? 좀 높은 벼슬을 시켜주지 않고.”

조상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냈다. 조상은 이 말을 듣고 섭섭하여 굿을 하고 자신을 모셔주는 고씨 심방을 따라갔다. 고씨 심방은 안채포에 뱀을 모시고 가는데, 우연히 보니 바로 건너 길가에 어떤 스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배가 고파 쓰러지는 스님에게 굿을 하고 얻어오던 음식을 드렸다. 스님은

“무엇으로 이 공을 갚으리까? 저의 힘 다하여 공을 갚으리다. 당신의 조상이나 눈에 뵈는 일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연히 안채포에 뱀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신이 기도하러 왔던 집안의 부군칠성이 됩니다. 그 조상이 때가 다 되어 따라왔으니 어서 모시고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는 이어서, 뿔자리를 봐주면서,

“당신의 부모를 여기에 감장(勘葬)하십시오. 이 앞의 생수가 마를 때까지는 성안을 올리고 말 것입니다.”

그로부터 고씨 심방은 상통천문(上通天文)·하달지리(下達地理)하여 세상일을 눈감고 다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삼시에 거부가 되고 또 당대에 벼슬이 쏟아져 나왔다. 큰아들은 제주판관(濟州判官), 둘째 아들은 대정현감(大靜縣監), 셋째 아들은 정의현감(旌義縣監), 그리고 자

손 중에 명월만호(明月萬戶)며 조방장(助防將)이며, 향교훈장(鄕校訓長)이며 많은 벼슬이 대를 끊기지 않았다. 이렇게 삼문 안을 뒤흔들고 높은 벼슬을 주어 대대손손 전하는 조상이다(현용준, 1976 ; 제주시 용담동 박수 안사인, 조천읍 북촌리 박수 박인주 제공).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

순흥 안씨 삼형제가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와 각기 다른 마을에서 살았다. 조천리에 정착한 안씨 선주는 배를 많이 가진 부자였다. 제주에 칠년대한이 들자 제주 목사가 백성을 구제해달라고 부탁한다. 안씨 선주는 돈을 가지고 쌀을 구하러 육지로 떠난다. 수소문 끝에 나주 기민창(濟民倉)이 묵은 쌀을 처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침내 쌀을 산다. 쌀을 배에 가득 싣고 출항하려고 할 때 아가씨가 배에 오르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여 배 안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지 못한다. 제주 가까운 곳에 이를 때 광풍이 일어 배 밑창에 구멍이 생기면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다. 안씨 선주는 하늘에 구해달라고 기도한 결과 파선을 면한다. 배 밑창을 확인해 보니 큰 뱀이 또아리를 틀어 구멍을 막고 있었다. 무사히 조천포구에 도착하자 안씨 선주는 뱀을 집으로 모시려 한다. 뱀이 안씨 선주의 집으로 가서 살펴보니 거처하기 마땅치 않아 조천포구 안쪽 '새콧알'의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안씨 선주의 꿈에 뱀신이 나타나 자신을 위하여 어부와 해녀를 차지해서 돌보아주겠다고 한다. 안씨 집안에서 수호신으로 위하고 어업 수호신으로 위하여 섬기기 시작한다(현용준·현승환, 1996 ; 제주연구원, 2017).

4·3사건

4·3 이전 평온한 마을

선흘리는 조천읍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중산간지대의 산간마을로 서쪽은 함덕리와 대흘리 및 와산리, 동쪽은 구좌읍 동북리와 덕천리, 남쪽은 교래리, 북쪽은 북촌리와 접하고 있다. 선흘리는 조천읍 중산간 마을 중에 규모가 크고 축산업과 농업을 주로 하는 부촌이었다. 방대한 규모의 ‘선흘곶’이 있어 뽕나무가 풍부했고 인근에 ‘반곶’과 선흘2구의 ‘곶연곶’이 있어서 주민들의 식수와 우마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선흘곶 일대에는 아름드리나무와 크고 작은 자연동굴이 있어 4·3 때 토벌을 피해 피신하기에 좋았다.

4·3 때 선흘리는 1구와 2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의 본동(웃선흘)과 새동네(장상동), 큰굴왓, 실물가름 등이 1구를 형성했고 선인동과 백(백)화동, 우진제비, 붉은헛밭이 선흘2구였다. 또 낙선동으로 알려진 알선흘에도 봉냉이동산, 돛바령, 당오름 등 크고 작은 마을이 있어서 한때 선흘3구로 편성되기도 했다.

4·3사건 이전 선흘리 세대·인구 현황

동(洞)명	본동	낙선동	선인동	백화동
4·3사건 전				
세대 (305)	178	38	65	24
인구 (1,567)	898	195	331	143

1955년에 작성된 난민정착보고서에는 4·3사건 이전 선흘리의 자연마을 이름과 세대수, 인구수가 앞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총 305세대에 인구 1,567명이었다.

1948년 11월 21일 군경이 선흘리에 대한 초토화작전 이후 본동과 선인동을 제외한 모든 마을이 소각된 후 재건되지 않았다. 백화동과 새동네, 큰굴왓, 실물가름, 봉냉이동산, 돛바령 등 마을은 세대수가 10호 이상 되었고, 2구의 우진제비(우진동, 6세대), 붉은헛밭(3세대)과 알선흘의 당오름(7~8세대) 등 마을은 규모가 작았다. 현재 4·3성이 남아있는 낙선동은 4·3 이후 전략촌으로 새로 조성된 마을이다.

4·3의 광풍에 휩싸여

해방 이후 선흘리에서는 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군중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1947년 3·1절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50여 명이 걸어서 제주읍내까지 8시간 이상 걸어서 가기도 했다. 4·3사건 당시 선흘리에는 알려진 활동가는 별로 없었다. 마을 자위대



반곶굴(도틀굴) 입구에 세워진
4·3유적지 안내판

를 중심으로 마을 자치적인 활동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선흘리는 유격대의 영향이 강했던 중산간 마을이어서 일찍부터 토벌대의 주목을 받아왔다. 소개 명령 이전부터 주민들에 대한 진압이 벌어지자 대부분 주민들은 선흘곶 등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 선흘곶에는 방대한 규모의 난대림 군락지에 자연동굴 등이 많아 주민들이 피신처로 삼았다. 또한 선흘곶 목재 벌채와 관련한 선흘리 주민들 간의 분쟁이 나중에 주민 희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선흘국민학교에는 1948년 10월부터 1개월간 9연대 1개 중대 병력이 주둔했다. 1948년 10월 31일 선흘국민학교 주둔 9연대에 의해



반못굴(도틀굴) 입구



목시물굴 4:3유격지 안내표식

선흘리 주민 4명과 인근 야산에 숨었다가 붙잡힌 북촌리 주민 3명 총 8명이 학교 인근 족지왓에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총살 당했다. 주민들은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11월부터 선흘곶 등지로 피신해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진 이후 주민들이 피신해 있던 굴이 하나둘씩 군인들에게 발각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연이어 희생되었다. 반못굴(도틀굴), 목시물굴, 뽕뽕디굴, 대곶이굴 등지에 숨어있던 주민 수십 명이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어 현장에서 수십 명이 총살당했다. 생포된 주민들은 함덕리 주둔 군부대로 끌려갔다가, 서우봉이나 북촌리 ‘억물’ 등지에서 총살되었다. 군의 명령에 따라 함덕리·조천리 등지로 소개된 주민들 가운데 ‘도피자가족’이란 이유로 함덕리 모래밭 등지에서 희생된 사람들도 있었다.

현재까지 선흘리 주민들 가운데 정부에서 인정받은 4:3희생자는 모두 220명(남 176명, 여 44명)이다.

선흘리 주요 사건

- 1948년 4월 26일, 부동선이 한라산 유격대에 살해됨
- 10월 31일, 죽지왓에서 선흘리 주민 4명과 북촌리 주민 3명이 토벌대에 총살당함
- 11월 18일, 군 토벌대가 큰굴왓(큰동네) 김성규의 집에 불을 지르고 5명 총살
- 11월 23일, 구금돼 있던 선흘리 여성 4명이 토벌대에 의해 동북리 지경 야산에서 총살당함
- 11월 25일, 반못굴에 숨어 지내던 선흘리 주민 22명이 토벌



목시물굴 입구

대에 의해 총살당함

- 11월 26일, 목시물굴에 숨어 지내던 선흘리 주민 29명이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함
- 11월 27일, 벤벵디굴에 숨어 지내던 선흘리 주민 14명이 토벌대에 의해 총살당함
- 11월 28일, 목시물굴에 피신했다가 발각되어 함덕리 군 주둔지에 수감됐던 선흘리 주민 13명이 북촌리 역물(역수동)에서 총살당함
- 12월 26일, 함덕리에 소개되었던 선흘리 주민 11명이 서우봉에서 총살당함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

1948년 11~12월 대토벌 이후 1949년 초에는 선인동과 웃밤오름 남쪽에 함덕지서의 경찰주둔소가 설치되어 잔비(殘匪) 소탕을 위해 경찰 10명 이상이 번갈아 주둔했다. 현재 선흘2리 경내에 선인동주둔소와 보모르주둔소가 설치되었다. 선흘·함덕·조천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축성했고, 도피 입산한 주민들이 마을로 복귀하기 이전부터 설치했다.

선흘리 주민들은 1949년 봄에 낙선동에 전략성을 쌓고 집단 거주했다.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한 축성 작업은 1949년 봄에 한 달 동안 계속됐다. 1949년 4월 성이 완성되자 선흘리 주민들은 함바집을 짓고 집단적으로 살았다. 선흘리 본동은 1953~54년쯤에 재건됐다. '알선흘'은 함덕리에서 원주민들이 올라와서 1950년에 재건했다.



낙선동 4:3성벽에 뚫린 총안

선흘리 주민들은 1956년 통행 제한이 풀리면서 비로소 원래 마을이 있었던 자리에 집을 지어 살았다. 전략성에 살던 일부 주민들은 원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성안에 정착해서 지금의 낙선동을 이루고 있다. 선흘1리의 새동네와 큰굴왓, 실물가름 그리고 현재 낙선동 근처의 돛바령과 봉녕이동산, 선흘2리 백화동은 복구되지 못하여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복원된 낙선동 4:3성 내부 모습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 1리

3. 사회·생활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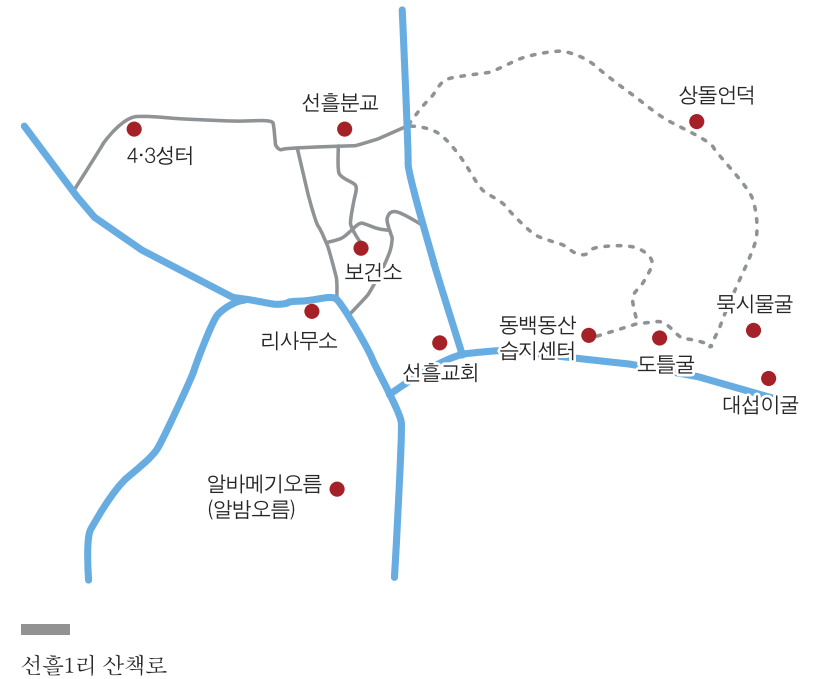
마을은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끊임없이 변해 왔다. 마을의 변화에도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다. 마을을 이끄는 단체와 사람들이다. 고향 마을을 등지지 않고 계속 살아온 사람들, 설사 한때 일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귀향하는 사람들이다. 아울러 새로운 등지를 터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거둬 마을을 탄탄하고 새롭게 다져지고 있다. 이들의 마을 공동체 형성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 사회에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한한 녹색에너지 선홍꽃을 품은 마을

마을 환경과 마을을 구성하는 사람들

마을은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끊임없이 변해 왔다. 마을 사람들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따라 마을의 변화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도 나쁜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농어촌 대부분의 마을은 쇠퇴의 기로에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청장년의 인구의 감소는 마을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낙후된 주거 환경은 마을 풍경을 스산하고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2007년 세계자연유산마을로 지정된 7개 마을, 즉 선홍1, 2리, 김녕리, 덕천리, 행원리, 월정리, 성산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마을들은 최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독특한 인문 환경을 둘러싼 마을 고유의 환경에 대한 질 높은 평가로 속속 사람들이 찾아오며 활기를 띠고 있다. 더욱이 살기 좋은 마을로 재인식되면서 점차 이곳에 정착하는 이들도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마을의 변화에도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다. 마을을 이끄는 단체와 사람들이다. 고향 마을을 등지지 않고 계속 살아온 사람들, 설사 한때 일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귀향하는 사람들이다. 아울러 새로운 동지를 마련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거둬 마을을 탄탄하고 새롭게 다져지고 있다. 이들의 마을 공동체 형성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 사회에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시키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선홍1리는 본동, 낙선동, 신선동, 묵선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2010년 12월 말일 기준 인구 규모는 288세대, 남 338



선흘1리 마을회관 전경

명, 여 320명 합계 668명이었다. 현재 2021년 12월 말일 기준 475세대, 남 480명, 여 470명 합계 950명이다. 10여년 사이 세대는 64.9%, 인구는 42.2% 증가했다. 마을 관계자에 의하면 마을 전체 인구 중 이주민은 약 30% 된다고 하니, 이주민들의 정착이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후되어 가는 농촌과는 달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하면서 세계자연유산마을로서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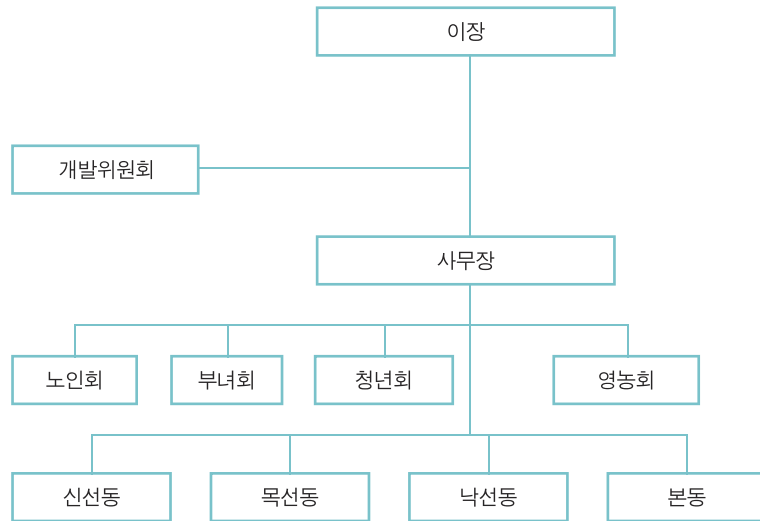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선흘1리 마을을 둘러싼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인 녹색 에너지의 원천지인 무한한 국내 최대 상록수림 동백동산, 꽃자왈 지대의 희귀동식물, 빌레지대 위에 형성된 독특한 습지 지하에 매장된 크고 작은 동굴 등과 같은 자연 생태요소들이 사람들을 매료

시켜 이 마을로 안내하고 있다.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자연이 준 선물을 잘 지켜내 보물로 만든 결과인 것이다. 아울러 마을의 역사와 전형적인 중산간지대의 독특한 농경과 목축문화 등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온 결과에서 비롯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규약에 따라 삶을 이끌어 왔다. 이런 공동체적 실천은 마을 사람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마을을 가꾸고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마을 이장을 주축으로 개발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하여 마을 원로들의 활동을 이끄는 노인회, 마을 어머니들의 봉사 와 헌신적 활동을 마다하지 않는 부인회, 마을 청장년들의 활기찬 활동을 이끄는 청년회, 농업에 기초한 마을 사람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영농회 등 마을 자생단체들의 꾸준한 열정과 활동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에 들어선 타운하우스 전경

마을 조직도



선흘1리는 2013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원탁회의 ‘리민큰마당’을 개최하여 마을의 큰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마을의 방향성을 스스로 논의하고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생태관광에 참여하고 있다.

놀라운 반전, 선흘분교가 선흘초등학교로 승격

제주도 교육사회의 핫뉴스 선흘분교 이야기는 제주 사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의 중요한 시사점을 각인시키고 있다. 선흘분교는 7년 전인 2014년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20명에 불과하여 폐교 논의

마저 있었다. 교육청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을과 학교 협의를 거쳐 2015년 선흘분교를 ‘건강생태학교’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학교와 마을은 인근 동백동산을 토대로 건강생태교육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학생 수는 2015년 21명, 2016년 24명, 2017년 54명, 2018년 62명, 2019년 72명, 2020년 92명 등으로 서서히 늘어났고 2021년 7월 1일 현재 110명이 되었다. 이로써 내년 2022년 3월 본교 승격으로 선흘초등학교로 개교할 예정이다. 선흘1리 인구 증가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을로의 이주는 마을 자체를 활기차고 유쾌하게 만들고 있다.

선흘 마을의 교육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1925년 현재 리사무소 자리에 개량 서당인 ‘선명사숙(善明私塾)’을 개교하여 문맹퇴치 운동 및 계몽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계기로 일본으로 유학을 시도하는 젊은이도 늘기 시작하였다. 일본으로 유학 간 선흘 출신



‘차츰차츰’ 새겨진 학교 건물과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선흘분교

인사들의 주도로 선흘리 1019번지에 1936년 5월 1일 ‘선흘간이학교’를 개교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선흘의 인구가 함덕과 유사할 정도로 증가했을 때이고, 간이학교가 일찍 생긴 이유로 조천에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1944년 5월 15일 선흘공립학교로 승격했지만 멀지 않아 1948년 4·3을 겪으며 폐교가 되는 설움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학교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놀랄 만큼 매우 강했다. 새롭게 마을이 재건되는 시기에 마을 주민들은 학교 재건을 위해 동백동산에서 숲을 구워 학교 기금에 보태는 모범을 보였다. 이 계기로 1953년 선흘국민학교로 승격돼 국민학교로서의 모습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선흘국민학교는 가장 활발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한편 지속적인 농촌 인구 감소와 저출산 등은 선흘국민학교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을의 목축업 감소와 더불어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일자리를 찾아 젊은층이 마을을 떠나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역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마을 주민들의 걱정과 만류에도 학생 정원의 문제로 1995년에 선흘초등학교는 함덕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제주 열풍이 불고 자연에서 아이를 마음껏 키우고 싶은 젊은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폐교 위기였던 선흘분교는 6학급을 이루며 탄탄한 학교로 거듭 모습을 갖추며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15년 ‘건강생태학교’로 지정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브라스밴드 ‘선흘울림’도 아이들과 학교에 커다란 자부심을 주고 있다. 매해 열리는 학교 운동회에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감사와 어우러지는 값진 시간을 가지고 있다. ‘차

춤차춤’이라고 쓰여 있는 학교의 글귀처럼 차춤차춤 내실을 쌓고 진정한 교육을 지향하며 한걸음씩 걸어 온 선흘분교의 본교 승격이라는 놀라운 변신은 학교,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소통과 정성과 노력이 얼마나 깃들어 있는지 절실히 느끼게 한다.

선흘초등학교 1회 졸업생 마을해설사 고병문 삼촌의 시

초등학교 시절

기초 공부해야 될 초등학교 시절에 교실이 없어서 한만 집 흙땅에
모래 깔고 배우는데 비오고

습기차면 옷에 얼룩 묻고 냄새도 나고

지금 앞선흘 4·3성터 안에서 1,2,3,4학년 하다가

지금 초등학교로 옮기는데

우린 어깨로 나무도 나르고 부모님 등어리로 돌을 날라

조금만 양철집 만들어서 앉아서 배우기도 하고 하다

선흘 초등학교 1회로 졸업을 했네

그때가 단기 4288년

- 동백동산습지센터 홈페이지 <http://ramsar.co.kr>

청소년의 독립심과 자급자족 키우는 범씨학교

자연생태마을 선흘1리에는 청소년들이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심을 키우고 생태적인 방식으로 자급자족의 경험을 익힐 수

있는 대안학교 범씨학교가 있다. 이 범씨 제주학사는 2013년 이영이 대표가 선흘동1길 35-1번지에 설립하였다. 이곳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동백동산까지 달리기도 하고, 밤마다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조화로움과 건강함을 추구한다. 또 농사와 집짓기 등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힘을 키운다.

이 범씨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나 물자는 생태순환적인 방식을 지향한다. 범씨학교에서 청소년들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기본 생계 활동을 중심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관심 분야를 확장해 간다. 성별에 관련 없이 모든 아이가 밥을 하고 바느질을 배우며 밭농사에 참여한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고 배움의 주체를 정하는 방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학생들의 수업 모습(사진: 범씨학교 제공)



학생들의 생태체험학습(사진: 범씨학교 제공)

내 많은 문화행사에 참여해 공연도 하고, 마을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배움을 교실이 아닌 생활의 터전인 마을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사

선흘곶의 과거와 현재

제주생태계의 보고(寶庫) 곶자왓이 중요한 생태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곶자왓은 시대에 따라 도민들이 착취적 혹은 효율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해 왔다. 곶자왓은 쌀 이외의 모든 물질을 공급하는 생활 터전이라 할 만큼 지역 주민들의 물

질적·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곳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목재 공급처일 뿐만 아니라 산나물, 식용열매, 약용식물 등을 채취하여 먹거나 팔았다. 또한 가을과 겨울철에는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단백질을 섭취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시사철 꽃자왈을 이용하였다. 또한 땀감으로 사용할 잡나무들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 나무를 태워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에 큰 보탬을 주었던 곳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림 자원을 끊임없이 조달해 주었던 귀중한 생활자원의 보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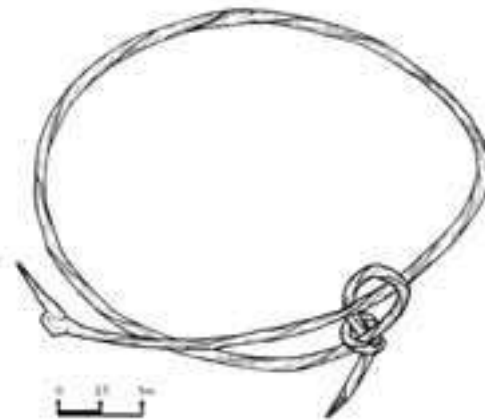
사실 꽃자왈은 최근 몇 십 년 전부터 학술적 연구가 대두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생태계의 보고로 인식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이전의 꽃자왈은 지역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다. 선흘꽃자왈도 역시 그렇다. 1971년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동백동산 습지에서 먹을 물을 길고, 빨래하고, 말과 소를 기르며 살았다. 또한 동백동산은 예로부터 숯을 굽고, 농사를 지었던 삶의 터전이었고 그만큼 귀하게 아끼고 가꾸왔던 곳이다. 아울러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준 곳이었다. 한마디로 선흘꽃자왈은 숯 굽기, 목축, 산전·화전경영, 사냥, 다양한 생활도구 만들기, 신탄과 땀감 채취, 야생열매와 약용식물 채취, 양봉 장소, 놀이터로서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해 적절하게 이용하고 활용해 왔던 곳이다.

선흘꽃자왈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했던 숯가마 터가 남아 있다. 연탄, 석유 등 연료가 사용되기 이전에 숯을 연료자원으로 이용할 때 숯 굽는 장소로 이용했다. 지금은 꽃자왈의 생활문화유적으로 교

육체험과 탐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겨울철에는 마을 주민 중 대부분 성인 남자들은 모두가 숯을 굽고 그것을 마차에 싣고 김녕 등지나 제주시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숯을 만드는 일을 ‘숯을 굽는다’, 또는 ‘숯 묻는다’고 한다.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숯은 겨울철 난방을 위하거나 판매하여 자금 마련 등 생계를 꾸리던 중요한 생활자원의 한 요소였다.

선흘꽃자왈은 야생 동물의 먹이가 풍부해 노루, 오소리, 꿩, 족제비 등이 서식하였다. 사냥은 주로 겨울철에 행해진다. 겨울에 짐승들이 몸에 영양을 축적하여 살이 썩어 있는 한편, 눈 위에 자취를 남겨 쉽게 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짐승들이 눈 위에서는 행동이 둔해져 잡기 쉬웠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면 따뜻한 곳을 찾아드는 습성이 있는 노루는 겨울철이 되면 먹이를 찾아 한라산에서 꽃자왈로 내려와 보금자리를 만들어 서식하며 보냈다. 또한 덩굴나무와 잡풀 덩불은 텃새들의 보금자리로 안성맞춤이라서 꿩들 역시 꽃자왈에서 겨울을 보내곤 한다.

노루를 잡는 방법으로는 총, 코, 사냥개를 이용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의 지서에서 총을 빌려 몰래 노루를 잡았었다고 한다. 노루코는 주로 칩으로 만들었다.



정쟁잇줄코(고광민, 2004: 313)

노루는 다녔던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어 노루가 잘 다니는 길목의 나뭇가지에 노루코를 설치하여 잡았다. 사냥개를 이용한 노루 사냥은 3~5명이 사냥개 한두 마리를 데리고 곳자왈로 가서 사냥개가 노루를 쫓으면 노루가 뛰어 도망치는 길목에서 노루를 덮쳐 잡았다. 선흘곳자왈에는 노루를 잡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들어놓은 석축함정인 '노루텃'이 남아 있다. 이 노루텃의 깊이는 2m 정도로 지형의 높낮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여러 사람이 노루를 몰아 노루텃으로 빠지도록 잡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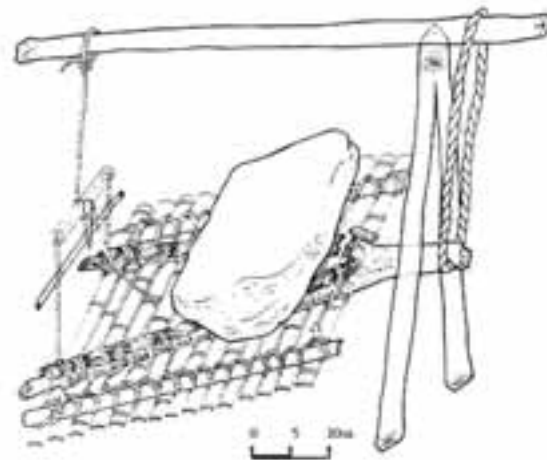
노루는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던 당시에는 중요한 양식거리였다. 특히 노루 사냥에는 분육이라는 관행이 있어 노루를 잡을 때 본 사람들에게는 전부 나눠 주어야 했다. 선흘에서는 이를 '번지'라 하였다. 노루 고기는 소금으로 간을 해 저장해 두었다가 먹기도 하였다. 또한 제숙으로도 사용했는데 고기를 종이에 싸서 방에 걸어 두었다가 바짝 마르면 제사 때 올렸다고 한다.

꿩 사냥은 말총으로 꼬아 만든 코를 이용하였다. 꿩도 식용으로 주로 이용되었다. 꿩은 고기를 말려 주로 제숙으로 쓰거나 메밀국



수를 할 때 꿩고기를 넣어 먹었다. 또한 겨울에 엿을 만들 때 살코기를 넣어 꿩엿을 만들어 먹었다. 꿩코로 꿩 잡기는 수량이 많지 않아 거의 먹는 경우가 많았지만, 4·3 이후 총으로 꿩을 잡을 때는 많이 잡을 수 있어 팔기도 했었다. 꿩알은 1980년대까지도 마을에 상인들이 와서 사서 갔다고 한다.

오소리 사냥은 사냥개를 이용하여 겨울 달밤에 주로 행해졌다. 오소리는 굴 밖의 일정한 곳에 대소변을 보는 습성이 있어 사냥개가 그 냄새를 맡아 오소리가 있음직한 굴을 찾아 나선다. 오소리는 가을철 많이 먹고서 한 굴속에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겨울 내내 나오지 않는 습성이 있다. 오소리 굴을 발견하면 주인이 굴 입구의 흙을 파헤치고 개가 들어가 오소리를 물었다. 개가 힘이 부족한 것 같으면 주인이 윗도리를 벗어서 덮치거나 쇠뿔뿔이 같은 것으로 때려잡



족제비덫의 구조(고광민, 2004: 314)

았다. 위에서 설명한 오소리를 잡을 때 사용하는 창, 즉 오소리 송곳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소리의 고기는 보신용과 약재로, 가죽은 가죽 감태라는 방한모 재료로 이용됐다. 특히 오소리 기름은 중이염에 특효가 있었다고 한다.

족제비는 밧으로 잡았다. 족제비는 고기보다도 털과 가죽을 이용하여 붓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팔아서 생계에 보탬을 주었다.

제주 사람들은 화산회토의 척박한 토양을 개간하고 노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거친 과도를 헤쳐 나가기 위하여 꽃자왈의 다양한 수목들을 이용하였다. 생활도구뿐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을 위한 재료로서 각종 농기구들을 꽃자왈 지역의 나무들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꽃자왈에 자생하는 나무들의 성질을 이해하며 그 성질에 따라 쓰임새도 달리하며 꽃자왈의 자연환경을 적절히 이용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꽃자왈 특유의 자연환경은 독특한 꽃자왈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꽃자왈 문화는 숲과 그곳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순응하고 삶의 여러 방식을 접목시켜 형성된 것으로 생활 속에 깊게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송시태 외, 2007: 41).

한편 꽃자왈의 나무를 이용한 농기구는 현재 70대 이상 어른들이 만들어 사용한 적은 있으나, 생활 민구는 그 어른들의 조부모 혹은 부모 세대에 만들어 사용해 왔던 용구들이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와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는 당시 꽃자왈이 많이 훼손되어 70대 이상의 어른들이 생활 민구로 사용 가능

한 크고 단단한 나무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과 꽃자왈에서 벌채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선흘꽃자왈의 동백동산은 최대 상록활엽수림 지대로 난대림이 가장 잘 보존된 곳 중에 하나이다. 선흘꽃자왈에는 종가시나무가 우점하는 군락으로 구실잣밤나무를 비롯하여 참식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붉가시나무, 식나무, 참가시나무, 때죽나무, 붓순나무, 예덕나무, 녹나무, 상수리나무 등 키 큰 수목들이 울창하다.

선흘꽃자왈이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만큼 많은 나무를 채취하여 사용함으로써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나무가 거의 베어져 꽃자왈 사이로 길이 나있을 정도(제민일보꽃자왈특별취재반, 2004:16)였다는 것으로 보아 한때 꽃자왈이 훼손되면서 겪은 수난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4·3으로 피해가 많았던 선흘 주민들은 4·3 이후 불타 버린 집들을 재건할 당시 꽃자왈의 큰 나무를 이용하여 집을 지어 마을을 복원시켰다고 한다. 또한 도내 곳곳에서 선흘꽃자왈의 나무를 베어다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꽃자왈의 훼손은 더욱 컸었다. 지금처럼 울창한 숲을 갖추게 된 것은 1978년경부터 방목지로 이용하기 위해 꽃자왈에 불을 지폈던 행위가 없어지면서 꽃자왈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무겁고 질긴 나무인 자귀나무, 구실잣밤나무, 가시나무류는 농기구와 생활 민구로서 벤줄레, 따비, 남테, 마차, 남방애, 뒤주, 도량형구 등 다양하게 이용했다. 선흘리 본동에 사는 마을 어르신은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옛날 쌀도 찢어 먹던 남방애(나무방아)를 만들려고 선흘꽃에 나무를 베러 갔는데, 나무 베어 두고 일곱 명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해. 그만큼 큰 나무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



남방애(제주민속촌소장)

까 예닐곱 명이 가야 하루 걸려서 남방애 만들 나무를 했다는 거야. 남방애는 참나무로 해.”라고 선흘꽃자왈의 나무 이용을 대해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선도 꽃자왈의 수목을 이용해 목재로 사용했었다. 제주도의 전통배인 통나무를 엮어 만든 태우는 한라산 고산지역에서 자라는 고유 식물인 구상나무를 이용하였고, 덕판배는 두 개의 돛을 단 풍선으로 구실잣밤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참나무류의 특성상 재질이 우수하고 굵고 통직한 대경목들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선박자재로 활용되었다. 덕판배에서 피새로 사용되는 솔비나무(솔피낭)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새는 나무못 종류로 참

오줌을 받아 뒀다가 썩으면 그 오줌에 나무를 삶은 후 다시 맹물에 삶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한다. 뱃전을 위에서 아래로 꿰어 박은 피새는 과거 선조들이 독특하게 창안하고 발달시켜 온 조선술 중 하나라고 한다(송시태 외, 2007:55~56).

어선이나 군선의 제작에 있어 귀중한 나무가 녹나무와 가시나무이며, 조선시대에는 군사용 배를 만들기 위해 소나무와 녹나무를 보호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과거 녹나무가 귀신을 쫓는 나무로 인식하여 집 주변에는 심지 않았는데, 심신을 맑게 해준다는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 목침을 만들기도 하고 물질하는 해녀들의 작업도구에도 이용되었다(송시태 외, 2007:56).

구좌읍 동김녕리에서 해녀들에 의해 전승되는 민요 중에서 ‘해녀노젓는 소리’가 있는데, 노랫말 중에 ‘노가 부러지면 선흘곶에 곧은 낭(나무)이 없을 소냐.’라는 구절이 있다. 즉 배의 노가 부러지더라도 선흘곶에 곧은 나무가 많으니 걱정이 없다는 의미로 선흘곶자왈이 목재의 중요한 공급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선흘리 지명에는 ‘배남넨뱃’이라 하여 조선시대에 ‘배(배)를 만들 남(나무)를 베어 나른 뱃(뱃)’이라는 데서 붙여진 배의 건조와 관련된 지명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오창명, 2010: 41).

이처럼 선흘꽃자왈은 과거 마을 주민들의 생활터전에서 현재는 보존해야 할 귀중한 생태계의 보고로서 시대에 따라 역할을 다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선흘곶을 비롯하여 제주도내의 꽃자왈은 진정 살아있는 유산으로 그 귀중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보존하여 후세대에 남겨 줄 위대한 유산임을 깊이 자각해야 할 것이다.

마을 공동체적 제의와 민간 신앙

마을의 안녕과 풍년, 화합을 기원하는 마을제인 포제는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유교식 제법으로 시행되는 마을 공동체적 제의이다. 선흘1리에서는 예전에 포제를 천제(天祭)라 하였다. 제신(祭神)은 하늘의 신인 ‘포신(酺神)’과 땅의 신인 ‘토신(土神)’ 2신위이며 같은 위치에 제단을 두 개 만들어 모시고 있다. 마을에서는 연말에 총회를 열어 포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제일은 첫 정일(丁日)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일을 정해 놓았다가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굿은 일이 생기면 해일(亥日)로 미뤄진다. 제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3일 정성’이라 3일 전 제청에 입제하여 재계(齋戒)를 한다. 그만큼 정성을 들여 마을제를 행한다. 선흘1리에서는 4:3 당시 마을이 불



선흘리 포제단



포신(좌)과 토신(우)을 모신 포제단 제숙 진설 모습(사진: 선흘1리사무소 제공)



선흘 탈남밭일뤼당. 피부병과 육아를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있다.

타 소개되면서 포제단도 불타 버려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포제를 중단한 적 없이 계속 행해왔다.

또 하나의 마을 신앙은 ‘본향당’이라 불리는 신당에서 치러지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다. 본향당은 그 마을의 설촌 역사를 간직한 살아 있는 마을의 ‘타임캡슐’이며, 마을이라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마을의 중요한 경관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기층문화로서 전통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이러한 성소(聖所)는 한 때 ‘미신타파’라는 이름하에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 엄청난 압박과 폄박의 역사를 견디며 존립해 온 마을의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선흘1리에는 알선흘과 웃선흘에 각각 당이 하나씩 있다. 알선흘에는 하르방신, 웃선흘에는 할망신이 좌정해 있다. 여느 마을과 같이 한 마을을 두루 관장하는 마을 수호신을 모신 본향당은 알선흘

에 있다. 본향당의 제일은 1월 14일이고, 제를 지내고 나서 심방이 마을 사람들의 새해 운수를 봐주고 액막이를 행해 줬다.

마을의 부녀자들에게는 본향당에서 한 해 운수를 보는 일은 중요했다. 부녀자들은 심방으로부터 한 해 동안의 운수가 좋다고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어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잘되리라 여겼다. 부녀자들의 당 신앙에 대한 믿음은 가족을 위한 정성과 기원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처럼 마을의 전통적 신앙은 마을 주민들에게 있어 삶의 정신적 구심점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또한 마을의 이러한 전통적 신앙의 기반이 되는 신성한 제의의 장소는 마을의 역사와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반영된 곳이라 할 수 있다.

마을 음식 체험, 도토리 칼국수

제주향토음식은 지세·토양·기후 등 지역의 독특한 자연 환경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도민들이 만들어 먹어 온 역사적 전통을 지닌 고유한 음식이다. 제주도는 토양이 척박하고 사면이 바다여서 해산물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는 않았다. 또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어서 식량과 식수 등을 자급자족해야 했으므로 식량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산과 바다와 들과 밭이라는 다양한 생활 무대 위에서 얻어진 다채로운 재료를 이용한 식생활을 영위해 왔다. 농촌, 어촌, 산촌의 생활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고, 그 지역의 생산 조건이 식생활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즉 농촌에서는 밭을 이용



둥글둥글한 도토리 열매(사진: 《선홍의 요리를 담다》, 2018: 18)

하여 토양에 알맞은 콩, 보리, 조, 메밀, 밭벼,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였고, 어촌에서는 해안에서 고기를 잡거나 물질을 주로 하고, 산촌에서는 한라산에서 버섯이나 산나물, 고사리 등을 채취해서 생활하였다. 제주향토음식은 자연 맛을 잘 살린 음식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향토음식을 토대로 한 식생활 문화에는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풍속 등 생활상의 자취가 깃들여 있다. 동시에 제주 전통 음식은 사회적 환경 조건을 받아들여 양식, 규범, 조리 가공법 등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른 지역의 음식과는 비할 수 없는 특성이거나 맛과 모습을 지닌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고 있다.

선홍1리 동백동산습지센터에서는 동백동산의 가시나무 도토리

로 만든 도토리 칼국수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의미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료, 즉 도토리를 이용하고 마을 부녀회와 마을 노인들이 참여하여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노인들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도토리철이 되면 동백동산에서 종가시나무·참가시나무·붉가시나무·개가시나무 열매, 즉 도토리를 주워 가루로 만든다. 이 나무들은 제주 말로 '가시낭'이라 하는데 참나뭇과에 속하는 상록수다. 열매는 일반 낙엽성 도토리보다 크기와 모양이 작지만 동그랗고 알이 튼실하고 맛도 최고이다.

도토리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는 마을 어른들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다.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주운 도토리를 솥에 삶아 3~4일 말린다. 이렇게 하면 오래 두어도 가시나무 열매에 벌레가 피지 않



도토리칼국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방문객(사진: 동백동산습지센터 제공)



도토리칼국수와 도토리묵, 반찬들로 정갈스럽게 차려진 한상(사진: 동백동산습지센터 제공)

는다. 껍질을 벗긴 후 물에 불려 뽕은맛을 제거한다. 땃돌이나 분쇄기로 간다. 이런 일을 '검피다'라고 한다. 다시 물에 불리면서 여러 번 물을 갈아준다. 햇볕에 가시나무 열매의 알갱이를 말리면 5~6개의 조각으로 쪼개지는데, 이를 '가시낭쌀'이라 부른다. 이 가시낭쌀을 물에 넣고 뽕은맛을 제거하고 다시 말린다. 가시낭쌀은 잡곡과 함께 밥을 짓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 묵을 만들기도 한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수제비나 칼국수는 일상으로 해 먹었다. 어머니가 만들어 준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은 마을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밤 어머니의 그리운 추억의 맛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마을 부녀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도토리 가루를 구입하여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칼국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당

일 싱싱하고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밀반찬, 닭과 야채육수로 만든 쫄깃한 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 더불어 선홍곶 동백동산의 도토리네 자연스레 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이 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기억과 바람

제주의 원시림 선홍곶자왓 동백동산을 품고 있는 선홍1리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마을로 지정된 후 놀라운 발전을 꾀하고 있다.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2008), 환경부습지보호지역 지정(2010), 랍사르습지 지정(2011), 국가지질공원명소 지정(2012), 랍사르 시범 마을 지정, 환경부 생태관광지 인증(2013), 세계지질공원명소 지정(2014), 생태관광지역 재지정(2017) 등 생태계의 보고를 지닌 마을임을 자타 공인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동백동산의 보전과 가치, 사람과 자연 모두의 행복을 실천하면서 ‘생태관광’을 통한 6차 산업을 꿈꾸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곶자왓의 파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동백동산곶자왓을 보전하며 마을과 사람, 자연이 하나가 되는 생태관광의 발전을 통해 동백동산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마음과 힘을 합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선홍1리는 2013년 이후 마을 주민들 원탁회의 ‘리민큰마당’을 통해 마을의 사업 등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로 생태적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홍1리 ‘생명 약속’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동백동산습지센터 홈페이지 <http://ramsar.co.kr/> 참조). 이는 선홍 주민들이 직접 모여 마을 주민과 여행자가 모두 행복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여행자가 마을에 와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자는 것이다.

마을의 귀중한 자연과 서로 화합하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지키며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소통을 이어가는 마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 주민들과 여행자들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마을 측에서는 선홍곶 동백동산과 마을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잘 정리하여 후세에 남길 것,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하고 의미 있는 안내를 할 것, 마을 경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 나갈 것, 여행자의 구간과 인원을 규제하여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이룰 것,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 신축 건물 설계는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행자들은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되가져 갈 것, 숲과 마을 안에서 금연할 것, 동백동산 탐방로를 벗어나 동식물을 해치거나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마을 안 통제구역은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함부로 기웃거리지 말 것, 차량으로 마을에 들어설 때는 속도 줄이고 지정된 곳에 주차할 것, 사진 찍을 때는 미리 의향을 물어 볼 것, 마을의 전통과 의미가 담겨있는 기념품과 지역 생산물을 활용해 주민 소득에 기여할 것 등을 지키면서 청정한 선홍1리를 가꾸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마을 해설사 고병문(1941년생) 씨의 기억에 선흘곶 동백동산은 놀이터이자 생활터전, 4·3으로 아픈 상처를 남긴 곳이지만, 이 동백동산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선흘곶 동백동산은 생태보호 구역으로 마을에서 더할 나위 없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 주고 있다.

마을 가꾸기는 마을 사람들과 방문자들이 모두 주인 의식을 갖고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갈 때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발전하더라도 마을 고유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로 자리매김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자연경관 등의 유네스



마을 주택과 골목길

코 3관왕과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등에 힘입어 최근에 인구 유입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마다 발전하면 할수록 여러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많은 사항들이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마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마을 사람들을 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1세기는 ‘지역 문화가 바로 자산이다’라는 문화 슬로건은 오늘날 문화 변동이 적었던, 오히려 한적한 외지였던 곳의 자연 그대로 모습, 그리고 조금은 불편했던 생활환경을 보유했던 마을에 적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와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어 온 마을의 자연적·인문적 환경이 이제는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적·경제적 자산으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세계화를 표방할 수 있는 주도적인 문화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선흘1리를 통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미래의 바람직한 마을상을 고민할 시점에 와 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알찬 아이디어로 새롭게 마을을 가꾼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존하여 남길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며 마을의 풍경, 그리고 마을의 생활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 마을에 대한 깊은 생각과 자세가 앞으로 김녕리라는 마을을 후세에 남기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방문하는 매력 가득한 마을로 남을 것으로 전망한다.



마늘에는 윗동네에서 알동네로 가는 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다.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 1리

4. 산업자원

선흘1리는 대체로 해발고도 200m 이하의 평탄한 지형으로 남쪽에 알밤오름이 위치한 중산간 지대의 산간마을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콩, 채소류 등의 밭작물과 감귤재배,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백동산 주말장터 운영, 그리고 카페나 식당 등이 생기면서 주민들과 탐방객들에게 많은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습지로 일군 마을 산업

선흘1리는 대체로 해발고도 200m 이하의 평탄한 지형으로 남쪽에 알밤오름이 위치한 중산간 지대의 산간마을이다. 이곳의 주민들은 콩, 채소류 등의 발작물과 감귤재배,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백동산 주말장터 운영, 그리고 카페나 식당 등이 생기면서 주민들과 탐방객들에게 많은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다.

최근 들어 선흘1리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꽃, 도구리 영농조합법인, 제주천연염색협동조합 이미애 갈옷, 선흘 뽕씨마을협동조합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리고 2010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과거 정수장 시설, 생활환경(식수용과 우마용 물) 개선, 숲 가마 운영 등은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60년 이후 지역주민과 재일제주인들은 지하수 개발 등 지역발전과 학교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이 마을은 중산간이라는 자연환경 등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공동체 조직을 통해 슬기롭게 한마음이 되어 주민들 간의 협동으로 살아가는 생태관광 지역이다.

산업경제 활동

발작물과 감귤재배

선흘1리는 조천읍의 남동쪽 내륙에 위치하여 중산간 지역 4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작은마을이다. 이 마을은 약 475세대 950명(남 480명, 여 470명) 정도의 인구로 약 40%가 콩과 감귤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19,688ha로 조천읍 12개 행정리(50개 자연마을) 가운데 가장 넓다. 농경지 면적은 전 758,980㎡, 과수원 1,974,281㎡, 초지 278,708㎡이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대 남부지역은 농암갈색화산회 토양이며, 동부지역의 해안과 중산간은 흑색화산회토양이 분포되어 있다. 흑색회토는 자연 비옥도가 매우 낮고, 비료 요구도가 매우 크며, 작물 생산성도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선흘리 농토는 다른 지역과 달리 토양이 기름져서 밭농사가 잘 되었다. 과거 대표적인 작물은 보리, 조, 콩, 무, 메밀, 유채, 밭벼, 고구마 등으로 자급자족 형태인 영세농업이었고,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지 않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감귤 최초 재배자

지역	재배자	조성년도	품종	재배면적(평)
조천리	김순환	1963년	궁천, 임온주, 팔삭	2,100(26년생), 4,100, 1,900
선흘1리	부옥홍	1969년	임온주	2,540(21년생)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2011),《조천읍 역사문화지》.



콩밭

겪기도 하였다. 일부 농가에서는 최근 재배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콩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도 있다. 현재 주요 소득원은 거의 감귤재배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농가는 계절에 따라 식량작물(보리 3곳, 콩 등), 특용작물(유채 1곳, 키위 3곳, 딸기 2곳, 백향과 3곳, 용과 1곳 등), 채소류(배추, 수박, 무, 호박 등)를 재배 생산하여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감귤재배는 1963년 조천리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선홍1리 등 인근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갔다. 부옥홍 씨는 1969년 선홍1리에서 최초로 감귤농장(2,540평)을 조성하여 임은주(21년생)를 재배하였다. 선홍1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가장 많은 농가가 종사하면서 으름 작물로 성장하고 있다. 김○○ 농장에서는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ICT 융합 스마트폰 하우스 지킴이)으로 한라봉(2,000㎡)을 재배하는 곳도 있다.



감귤밭

일부 과수원에는 잠시 일터를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과실나무(팽나무, 매실, 녹차, 모과, 석류, 자두 등)가 심어져 있는 감귤농장도 있다. 선홍1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귤~ 따고 먹고’ 체험은 주렁주렁 탐스러운 노란 감귤밭에서 직접 따서 먹어보는 유쾌하고 상쾌한 겨울 비타민 체험인데 1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보통 11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되고 있다.

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목장 쇠퇴

선홍1리의 중산간 지대(해발 800~300m)는 넓은 초지가 발달하여 예로부터 방목지대로 이용해 왔다. 선홍1리는 마을 주변을 따라 산간마을인 교래리까지 광활한 목축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대규모 목초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곳의 마을 공동목장은 중산간 지대에 주



공동목장 터

로 분포하는데,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고 토지가 척박하여 경작하기 힘들었다. 반면 기온이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아 목초는 잘 자랐기 때문에 방목장으로 이용되었다.

과거 축산농가에서는 보통 소(3두), 말 등 전체 180두 이상을 키웠는데 1970년대 소와 말 가격이 폭락하면서 축산농가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마당에 물통이 1개씩 있었다. 동백동산 위의 반뫓을 지나서 시멘트 길로 들어서면 돌로 쌓아서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만든 물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숲이 우거져서 찾기 힘들다. 부상철(현 이장)에 따르면 “중학교 때 부친을 대신하여 일했기 때문에 잣담을 쌓았던 기억이 있다. 소들이 아래에서 먹이를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원들이 만든 물 먹이통이 여러 군데 있었다. 물 먹이통은 아래쪽에 2개, 위쪽에 3개 등 총 5개가 있었다.”라고 했다.



목초

1990년대 마을 공동목장(선흘웃마장, 알동네마장, 알선흘마장)은 선흘리 산 36 외에 12필지가 있었다. 축산농가에서는 한때 대규모 목초지가 존재해서 공동목장을 운영하였는데 현재 2010년 모두 폐업하여 해산되었다. 이로 인해 선흘리 공동목장은 국·공유지 임대 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선흘리 공동목장은 조합원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 매매(2곳 마장)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매각하지 않는 조합원은 부○○, 오○○, 박○○, 안○○ 등 12명 등이다. 그런데 4~5년 전 계원 김○○ 등 3명은 부친들이 매각했던 공동목장 소유권을 되찾았다. 이들은 20년 전 2천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잔금 4천만 원을 받지 못해 계속 세금을 내다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다.

1990년대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목장은 한우(5곳), 젓소, 말(5곳), 양계(7곳), 염소(2곳) 등 20여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채 현존하는 목장은 건준목장(젖소 160두), 대영목장(경주마), 천우목장(한우 100두), 동물농장(젖소 60두), 선삼동목장(젖소 140두), ○○농장(한우, 비육 50두), ○○농장(말 50두), 육계단지에 있는 ○○목장(한우 50두, 닭, 육계) 등이 있다. 그리고 동백동산 입구에 있던 ○○농장(20년), ○○농장 등 양돈장 3곳이 있었는데 2~3년 전 유네스코 제주세계자연유산마을 선정과 오수 등 법적 위반으로 모두 폐업한 상태이다.

동백동산 주말장터

동백동산습지센터에서는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세 번째 토요일과 일요일 등 이틀간 잔디마당에서 선홍 주말장터를 운영하여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동백동산습지센터의 휴관으로 선홍장터

선홍 장터 탐방객 수, 체험, 매출 현황

(단위 : 명,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월 기준)
탐방객 수	22,834	29,582	32,927	42,013	50,111	42,928	46,627
도토리 체험	30,000,000	60,000,000	65,000,000	65,768,000	63,368,000	12,730,000	3,774,000
선홍장터 매출	28,100,000	24,600,000	27,100,000	30,200,000	44,290,000	38,100,000	19,692,000
어르신 주말장터	-	-	5,891,000	4,355,950	1,392,500	614,500	208,000

자료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제공



주말장터 판매장(사진: 동백동산습지센터 제공)

도 잠시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곳 장터에는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만든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있다. 연간 농산물 이용자 수는 마을주민 강희선 씨 외 약 50명이다.

장터 품목으로는 선홍꽃 꿀, 감귤꽃 꿀, 선홍 고사리, 동백기름, 도토리가루, 동백동산 손수건, 꽃자왈 손수건, 네이처링 손수건, 티셔츠, 선홍 그림책, 비옷, 천연 꿀, 물 병, 보드게임 돗자리, 북 클럽, 동백동산 엽서, 뱃지, 재생 노트, 거치대, 고사리 책, 요리 책, 놀이책, 킬리링 북, 천연염색 제품, 자수 제품, 다이어리, 백향과 청, 참깨, 어성초, 동백오일 비누, 도토리 브로치, 나뭇잎 보물 지도, 에코백, 캐릭터 문구제품 등이 있다. 이처럼 주말장터에서는 선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선홍꽃 꿀, 고사리, 도토리가루, 동백기름, 미숫가루, 백향과, 백하수오 등)과 브랜드 개발 제품(문구류, 손수건, 제주고사리삼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판매장이 갖추어져 있다. 이 외에도 먹거리(쫄면, 떡볶이, 떡갈떡볶이, 떡갈떡볶이, 떡갈떡볶이 등)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선홍마을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먹거리

선홍마을 안에는 카페 세바가 있고, 동백동산 습지센터 쪽으로는 카페 동백, 선홍꽃 식당이 있다. 길가 쪽으로 동백상회, 순우네 편의점을 비롯하여 작은 부엌, 언니네, 도르명식당, 피자집, 제주한면가 등 식당도 하나둘 생기고, 타운하우스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낙선동 성터에서 동백동산습지센터 쪽으로 이어지는 도보 가능한 길도 생기는 등 마을의 모습이 하나둘씩 바뀌어 가고 있다. 이처럼 선홍1리 마을에는 아름다운 선홍 반딧불에 위치한 식당, 동백동산 옆길을 따라 덕천마을로 가는 길에 있는 식당,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하는 곳 등이 있다. 개발과 변화를 막을 수 없겠지만, 마을의 생태와 경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게 유지되고 사람의 정이 있는 마을로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세대에 선홍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백상회



순우네 편의점



향토 음식점



언니네

사회적경제 지원 및 경영조직

생태관광지,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이사장 부영주)은 2018년 2월 조합원 168명으로 구성하여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동백동산의 보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 그리고 선홍1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백동산 보전사업, 생태관광 사업,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운영 위탁사업, 주민 복지사업 등이 있다. 동백동산을 찾는 여행자와 탐방객들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이 동백동산 보전을 위해 하는 일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선홍곳에서는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습지·생태·



사회적협동조합선홍곳 표지판

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선홍 주말장터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을 이루고 있다. 수익에서 일부는 동백동산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복지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매해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약소하나마 정성과 마음을 담아 생신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있다.

자연이 숨쉬는 곳, 도구리 영농조합법인

도구리 영농조합법인(기능보유자 김은옥)은 2008년 5월 공장(자본금 3억 원)을 설립하여 같은 해 10월 말부터 제주의 땅에서 자가 생산한 콩을 원재료로 제주의 전통방식(6개월간 자연 숙성)을 통해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분말, 전통엿 꿀돈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장 담그는 과정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패키징 라인으로 보다 나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전통장류의



도구리영농조합법인 표지석



장독대 전경

선두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초창기 때 기계 대수는 3대(세척기 1대, 분쇄기 1대, 교반기 1대)로 연간 3,000kg(2008년 기준)을 생산하여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콩은 자체 수확(50%)하거나 작목반(50%)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판매방식은 현재 입소문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 도내 학교 급식 재료로도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종업원은 수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메주를 씻거나 담글 기간에는 70~8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이 법인의 특성은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제주 선홍마을, 2년 이상 자연 숙성, 장독대의 고유한 장맛 등이다. 도구리 영농조합법인에는 제주의 조상님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주 전통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제주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슬로우푸드 체험 프로그램(도구리 제주전통 고추장 만들기, 도구리 찜장 만들기, 도구리 막장 만들기, 빙떡 만들기, 범벅 만들기, 뚝배기엿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식생활 개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

램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의 기회, 친목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 천혜의 환경이 제공하는 풍부한 일사와 해풍, 그리고 장인정신으로 전통의 맛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청정자연의 환경친화적 제품, 이미에 갈옷

제주천연염색협동조합 이미에 갈옷은 제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천으로 만들고 있다. 이 천은 제주의 갈천이라고 하여, 이 소재를 가지고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이미에 갈옷은 1996년도부터 제주지역에서 자생하는 제주 토종 꽃감나무 열매를 이용하여 제주 해풍과 제주 햇살을 듬뿍 담아 감물 염색으로 발색을 한다. 그 위에 제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등의 식물에서 얻은 염색재료를 활용한 복합 염색으로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원단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이미에 갈옷 가게

미애 작가의 이름을 내건 이미애 갈옷은 자연 친화적인 전통방식으로 천연염색을 한 후 미적 우수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의류, 침구류, 가방, 모자, 스카프 등 최신 유행에 어울리는 100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과 소품들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면, 방목·감물 염색 및 의류 등 생활의류 맞춤전문, 아동복, 각종 소품 일체를 만들고 있다. 2007년부터 소나무와 솔잎을 활용한 천연염색 원단을 생산하고 있다. 소나무를 이용한 염색은 견뢰도가 우수하고 소나무의 약용효과를 내세워 심리적 안정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해초 염색과 쪽을 이용한 복합 염색과 더불어 다양한 천연염색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자연이 주는 색을 발현하여 탄생된 이미애 갈옷의 제품들은 힐링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갈옷, 갈 모자, 천연염색 가방 등을 주요 품목으로 ‘제주들불축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범씨마을협동조합

범씨마을협동조합(대표 홍기주)은 2018년 5월 청년들이 비전을 실

선흥범씨마을협동조합 현황

명칭	년도	대표	분야	대상	목적	소재지
선흥 범씨마을 협동조합	2018	홍기주	협동조합	마을주민	건강한 마을공동체 형성, 청년들의 비전실현을 위한 지원 활동	선흥동 1길 31-25



범씨마을협동조합 조합원 모임(사진: 범씨마을협동조합 제공)



범씨마을협동조합(사진: 범씨마을협동조합 제공)

현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비빌 언덕이 되도록 커뮤니티 공간과 숙소를 만들었다.

선흘 범씨마을협동조합은 건강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마을을 건축하였다. 이 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생명이 소중한 세상’, ‘생명이 자유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주거 및 생활공동체 형성과 청년들을 지구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아직은 초창기라 먹을 것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생활공동체 형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마을사업, 교육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마을 발전과 애향의 단성(丹誠)

정수장(井水場) 및 식송(植松) 사업

선흘1리는 70여년 전 이곳 옷동네 25가구 주민들의 고달픈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1940년을 전후해 정수장 및 식송 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은 1938년 봄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흥우 어른으로부터 동네 안의 부지를 기부받아 1년여간 함덕 해수욕장의 모래를 등짐으로 지어 나르면서 정수장 2개를 건조하여 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 40여 년간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4년 후 1943년 1월 뜻을 같이한 열정적인 25인이 결집하여 소나무를 심어



식송원 표지석



식송원 취지문

가꾸자는 식송계(植松契)를 결성하게 된다. 옛날부터 소나무는 집 짓는 목재로 땔감 및 그것을 팔아 옷감을 구입하는 등 의식주의 바탕으로 귀중한 생존자원으로 이용되었다. 계원 1인당 2원씩 모으는 한편 고달주 계원이 식송 부지를 기부함으로써 선흘리 5000여 평을 매입하여 소나무를 심은 바, 무럭무럭 자라 송림(松林)이 조성되어

가고 있었다. 시대상으로 볼 때 자생단체로서는 조선시대 송계부(松契簿)를 능가하는 참으로 진취적인 육림 사업이었다.

주민들의 삶의 원천, 식수용과 우마용 물

동백동산 습지 산책로에는 당시 우마가 지나다닐 때 가축들의 식수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저수지인 ‘뚝뚝’이 있다. 이곳은 물이 귀한 시절 마을 주민들이 우마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힘을 모아 흙을 파내고 돌담을 쌓아 만든 물통이다. 소와 말에게 물을 주기 위해 일부러 만든 못으로 이름을 ‘새로판물’이라고도 한다. 비가 내리면 수위가 높아지며, 못에는 도롱뇽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다. 지금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어 지역 학생들의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선흘1리에는 반못과 먼물각을 비롯하여 홍우판물, 새물, 농골, 유리물, 현수판물, 반



새로판물(음수용)



새로판물(음수용)



먼물각



반못

대물, 고은물(고망물) 등 식수용과 우마용으로 이용되었던 곳이 여러 군데 남아 있다.

주민들의 생활상, 숯 굽던 가마터와 숯막

숯가마 터는 동백동산 꽃자왈 내 80~90m 고지에 위치해 1960년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만들어져 선흘리에 산재해 있는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조록나무 등을 이용하여 숯을 구어 냈던 장소이다. 숯가마는 숯 생산을 위해 돌과 흙으로 만든 가마로 기록되어 있다. 작업방법은 숯 구덩이를 만들어 나무를 채겨서 짚을 쌓은 후 흙으로 덮고 돌로 만든 구덩이에서 구워내었다. 숯가마 터는 약 30만 평 면적에 몇십 군데가 존재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한곳에 5~6개 정도가 있다.

숯막이란 숯을 굽는 곳에 지은 움막을 말한다. 숯가마 근처에는



숯 굽던 가마터



숯 굽던 가마터

크고 작은 움막이 자리하고 있다. 숯막은 숯을 굽는 일정기간 동안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공간으로 숯 굽는 동안의 기거 장소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물도 있어야 하고 2~3일이나 1주일 정도를 기거해야 해서 숯막(움막)을 지어서 숯을 구웠다. 현재 숯가마는 돌 숯가마 2기, 1회용 숯가마 78기 등 80기, 숯막은 50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주민들은 돈벌이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구운 숯을 조천, 함덕, 김녕, 신촌 등 주변 마을에 판매하였다고 한다. 또 이들은 동백나무를 살리고 잡목을 베어 이것으로 목탄을 만들어 팔아서 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을 제공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마을이 새롭게 재건되는 시기에 학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 동백동산에서 숯을 구워 학교 기금에 보태는 모범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선흘국민학교로 승격되어 현재의 학교 모습을 확립하는 데

공헌하게 되었다.

동백동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옛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돌로 주위를 둘러친 담만 남아 있었다. 숲을 굽는 것 또한 옛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동백동산 곳곳에는 숲 생산 유적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숲막 터가 남아 있고 오래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마을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지하수 개발을 통한 마을 발전

정부에서는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성공리에 이루어짐에 따라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으로 속칭 짐서리왓에 심정굴착을 착수하여 지하수 시추에 성공하였다. 이곳은 지하 93m, 수심 10m 이상이며 1만여 사람들에게 급수할 수 있는 수질(수자원)이 양호한 지역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이곳에 관정(管井)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전기의 힘으로 뽑아 올리고 전기외선 공사까지 정부의 지원으로 이끌어와 소위 물의 혁명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때 마을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 본리 전기내선 공사비 전액을 쾌척 회사하여 준 춘원(春園) 안명규(安明奎) 선생의 뜻에 부락민은 감사하여 1975년 선흘리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덕비를 세웠다.

습지가 품은 자연생태우수마을

선흘1리는 환경부가 지정하는 2010년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

정되고, 2011년 제주도 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로 등록, 2012년 국가지질공원 명소로 지정되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동백동산은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의 천연림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곳은 백서향 나무, 변산일엽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난대성 상록활엽수 지대로는 가장 면적이 넓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동백동산 산책로는 관광객 및 마을 주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명소이고, 알밤오름은 말굽형 화구로 해송과 삼나무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 포제를 지내고 있으며 본향당 등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잘 어우러진 마을이다.

마을발전의 공로 새긴 비석 건립

선흘1리 마을의 비석은 향리 출신들이 향토발전을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기리거나 마을회관 건립 및 학교발전에 도움을 준 선인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세운 비석들이다. 마을회관과 학교 앞에는 목사로 재직 시에 선정을 베푼 관료를 추모하는 비와 치적, 거사를 기리는 내용을 담은 고비(古碑)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의 고마움을 기린 기념비 등이 세워져 있다. 비석들은 토지를 내놓아 우물을 팔 수 있게 해준 공로로 세워진 송덕비와 전기가설, 복지시설 건립 등에 도움을 준 선인들의 공로와 희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선흘리 출신 고백송은 선흘분교장 전신인 선흘간이학교 설립 초기 1937년 7월 15일 학교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토지를

마을 발전의 공로 새긴 비석 건립 현황

종류	건립연대	위치	비문	건립 내용
선정비	미상	선흘리 1207	牧使尹公久東淸德善政碑	마을 복지회관 건립 회사
거사비	미상	선흘리 1207	牧使具公載龍去思碑	흙민 선정
연시비	1915	선흘리 1207	居士安昌龍捐施碑	마을 발전 공헌
송덕비	1973	선흘리 1리	淑人尹李根頌德碑	마을 발전 공헌
기념비	1975	선흘리 1207	在日善屹親睦會捐出紀念碑	전기가설 회사
기념비	1975	선흘리 1207	電氣架設基金捐出紀念碑	전기가설 기금
기념비	1975	선흘리 1207	前里長吳泰燁紀念碑	마을 발전 공헌
송덕비	1975	선흘리 1207	春園安明奎先生同夫人延州玄氏頌德碑	전기가설 후원
독지비	1980	선흘리 1207	故安榮彬篤志碑	공회당 건립 토지 기증
기념비	1980	선흘리 1207	篤志家高奉奎 安昌海 安昌休紀念碑	우물터 기증
기념비	1982	선흘리 1207	敷地喜捨紀念碑	부지 회사
기념비	1987	선흘리 1207	故高水哲 金昌玉 高奉奎 白成西記念碑	마을 복지회관 건립 회사
기념비	1987	선흘리 1207	福祉會館建立記念碑	마을 복지회관 건립 기념

자료 : 北齊州郡(2001), 《北齊州郡 碑石總覽》.



선인들의 공로를 기리는 비

기부하였다. 이 토지는 조천읍 선흘리 산 81번지(임야면적 81,620㎡)에 위치해 선흘분교장 학교림(생태자연·관찰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춘원 안명규(安明奎)와 부인 연주현씨(延州玄氏), 안영빈(安榮彬), 고봉규(高奉奎), 안창해(安昌海), 안창휴(安昌休), 고수석(高水哲), 김창옥(金昌玉), 백성유(白成酉) 등은 마을의 전기가설 후원(1975년), 공회당 건립 토지 기증(1980년), 우물터 토지 기증(1980년), 마을 복지회관 건립(1987년) 등에 동참하면서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진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향리 출신들의 기증, 마을 기반시설 조성

이 마을은 척박한 환경에서 경지 면적이 좁고 생활 터전도 빈약하지만, 외지로 출타하여 재일동포가 많지 않은 고장이다. 하지만 이분들의 애향심은 대단하여 학교 비품, 공공시설, 마을 금고, 전기가설, 교육 기자재, 학교 발전 등에 많은 협조를 하여 마을개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재일선흘친목회장(在日善吃親睦會長) 부승관(夫升官) 외 14명은 전기 가설 기금으로 1,075천 원을 기부하였다. 결국, 이 마을 출신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일제주인의 기증실적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도 학교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으며, 마을 개발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재일제주인의 기증실적 현황

년도	거주지	성명	품명	종류	금액 (천원)	수량	목적
1966	大阪市	부운용	캐비닛	현물	6	1	선흘초등학교비품
1971	大阪市	손유형		현금	20		선흘리공공시설
1973	大阪市	安明奎		현금	4000		선흘리마을금고도서
1973	大阪市	趙洪弼		현금	1000		선흘리전기가설
1974	大阪市	安明奎		현금	4000		선흘리전기가설
1974	大阪市	在日善吃親睦會		현금	1000		선흘리전기가설
1975	大阪市	安明奎	TV	현물	130	1	선흘초등학교시청각교육자재
1984	大阪市	夫承安		현금	600		선흘초등학교장학기금
1996	大阪市	윤재홍		현금	1400		선흘1리발전기금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07), 《愛鄉의 보람》.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흘 1리

5. 관광자원

예나 지금이 동백동산을 뺀 선흘1리는 상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동백동산은 마을을 이룬 원천이었고, 함께 공존하고 가꾸어가야 할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선흘1리의 자산은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연뿐만이 아니다. 마을이 이어온 역사와 생활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을은 이들 자산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숲은 마을을 품고, 마을은 사람을 품고

생태관광마을 선홍1리 주요 연혁

1970

- 1971 동백동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제주도기념물 제10호
- 1973 선홍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보호지역 지정, 제주도기념물 제18호

2000

- 2007 세계자연유산마을,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 2008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 2010 환경부습지보호지역 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 재지정
- 2011 람사르습지 지정, 등록면적 590,083㎡(178,500평)
- 2012 환경부 생태관광지시범사업대상지 지정, 국가지질공원명소 지정, 세계유산마을 권역총합정비사업
- 2013 람사르 시범 마을 지정, 환경부생태관광지 인증
- 2014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 협약식, 세계지질공원 명소 지정
- 2015 생물다양성 및 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2016 습지생태예술제 물·숲·새 개최
- 2017 생태관광지역 재지정
- 2018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 2019 생물권보전지역

프롤로그

선홍곳 동백동산 습지마을 선홍1리를 소개하는 인터넷사이트 홈페이지(ramsar.co.kr)의 대문에는 “숲은 마을을 품고, 마을은 사람을 품고”라는 말이 걸려 있다. 이 마을을 한 마디로 밝히는데 이보다 더 알맞은 표현이 또 있을까 싶다. 그렇다. 선홍1리는 숲이 품은 마



동백동산 입구

을이며, 그 속으로 사람이 안겨든 마을이다.

마을 이름 '선흘'의 속뜻을 알면 단박에 '울창한 숲'을 떠올릴 것이다. '선'은 '서 있다'는 것이고, '흘'은 '숲·수풀'의 뜻을 지닌 제주토박이말이니, 마을 이름 '선흘' 역시 숲을, 그것도 울창한 숲을 품고 있는 것이다.

매당초 숲에 기대어 생겨났고, 수백 년 동안 숲과 더불어 살아왔으며 지금도 숲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최근에는 '생태관광마을'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덕분에 거의 날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역시 숲



선흘1리 마을 안내도

때문이다. 숲의 기운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이 마을을 찾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흘1리 하면 떠올리는 이름 '동백동산'은 이 마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생태관광마을 선흘1리'의 주인공이다. 그 기미는 일찌감치 있어왔지만, 본격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세계자연유산마을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이후 선흘1리의 관광은 오로지 '생태'에 초점이 맞춰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둘러보고, 찾아보고

선흘1리에는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3개의 여행코스가 있다. '바람길'과 '4·3역사길' 그리고 '선흘둘레길'이 그것이다.

바람길은 선흘곶 동백동산 숲을 탐방하는 5.1km의 길이다. 동백



선흘둘레길에서 만난 풍경



선흘둘레길에서 만난 풍경



선흘둘레길에서 만난 풍경

동산습지센터에서 출발해 도틀굴, 상돌언덕, 먼물깎, 동백동산 서쪽입구, 포제단길을 거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코스다. 광활하고 깊은 선흘곶자왈의 작은 일부이지만 숲과 습지, 숲을 이룬 온갖 식생들, 습지에 깃들여 사는 생명들, 동굴, 마을사람들 삶의 흔적 등 다양한 풍경들을 풍부하게 만나볼 수 있다.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4·3역사길은 이 마을이 겪은 4·3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코스다. 동백동산습지센터에서 출발해 도틀굴 등 탐방로 3.5km를 지나 동백동산 서쪽입구에서 선흘분교, 감골과수원길을 거쳐 낙선동4·3성터에 이르는 4.8km의 길이다. 4·3성터에서 여행을 마치지 말고 좀 더 걸을 요량으로 다시 선흘분교 앞까지 가서 마을 안길로 들어가 ‘불카분당’까지 만나보고 동백동산습지센터로 가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다. 4·3과 연관이 없지만 4·3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소문났던 나무, 불카분당의 사연은 따로 정리했다.

선흘둘레길의 길이는 12.5km로 동백동산, 4·3역사, 마을역사 등 선흘1리의 분위기를 골고루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동백동산습지센터에서 출발해 3.5km의 숲길을 지나 선흘분교, 낙선동4·3성터, 뽕뒤왓길, 전망대, 흐린내, 왕모루, 마을운동장, 새동네, 반뫓을 거쳐 센터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

관광자원 포인트

선흘1리 여행의 출발과 마무리

동백동산습지센터

내비게이션에 ‘동백동산습지센터’를 치면 입구까지 안내해준다. 입구 앞까지 데려다주는 버스 노선도 있다. 입구로 들어서면 시원하게 펼쳐진 넓은 주차장과 센터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동백동산습지센터 탐방안내소

동백동산습지센터는 2015년 3월부터 문을 열었다. 센터 건물의 왼쪽에 ‘생각터’라 이름붙인 사무실, ‘배움터’라 이름붙인 교육실, ‘만들터’라 이름붙인 체험실 등이 있고, 생태환경교육과 생태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교육실은 60여 명이 이용할 수 있고, 체험실에서는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센터 건물의 오른쪽에 자리한 탐방안내소에서 자연환경해설가와 지질공원해설사에게 동백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고 싶으면 미리 예약해야 한다. 선흘장터도 운영 중이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고사리, 벌꿀, 동백기름 등의 특산품과 동백동산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디자인 개발 문구류 등을 전시해놓고 판매하고 있다.



원시의 풍경 속으로

동백동산 숲길

희귀식물의 보물창고

동백동산 탐방로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을 잃어버린 듯, 묘한 충격을 만난다. 원시의 풍경이 이랬을까 싶은 깊은 숲이 거짓말처럼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뭔가에 홀린 듯 뒤도 안 돌아보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게 동백동산이다.

울퉁불퉁 바닥이 고르지 못한 숲길이 좁고 길게 이어진다. 자칫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서도 주변 분위기가 비슷해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곤 했던 모양이다. '탐방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 글귀가



동백동산 탐방코스



동백동산 숲길



종종 눈에 띄고, 햇갈릴 만 하면 동그란 번호표가 나타나 이정표 노릇을 하면서 길을 안내해준다.

동백동산은 선홍꽃자왈의 일부다. 예로부터 동백나무가 많다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데, 정작 오래된 동백나무는 만날 수 없다. 동백나무뿐만이 아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거의가 아름답지 거 목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원시의 느낌이 드는 것은 생명력 왕성한 날것 그대로의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식생은 동백나무를 비롯해 주로 구실잣밤나무, 종가시나무, 후박나무, 비쭈기나무 등의 난대성 수종들이다. 위낙에 빨리 자란다는 구실잣밤나무를 빼고는 대부분 몇 줌 안 되는 가느다란 몸집으로 무리를 지어 '따로 또 같이'를 하고 있는 맹아목들이다. 과거에 벌목으로 잘린 나무의 밑동에서 다시 가지들이 나와서 한 뿌리에 여러 줄기로 솟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맹아림인 것이다. 숲속의 나무들을 베어다가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땀감을 썼던 시절을 겪었던 제주 꽃자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자 꽃자왈에 자라는 나무의 수령을 알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백동산 숲길 속 이정표

동백동산은 제주도에서 평지에 남아 있는 난대성 상록활엽수림 으로서는 가장 면적이 넓다. 뿐만 아니라 제주 중산간 원식생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숲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동백동산에서는 양치식물 21종, 상록활엽수 35종을 비롯해 모두 200여 종의 식물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식물로는 변산일엽(골고사리), 새우난초, 보춘화, 사철란, 백량금, 백서향, 뽕장풀 등이 꼽히는데 대부분 희귀식물이다. 덕분에 동백동산은 1971년에 제주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동백동산에서 처음 발견되어 2001년에 신종으로 기재된 식물도 있다. 제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주고사리삼'이라 이름 붙은 양치식물이 그것이다. 한국 특산식물로 지구상에서 제주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이다. 동백동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지대이지만 꾸지뽕나무, 참느릅나무 같은 낙엽활엽수도 꽤 많이 있다. 제주고사리삼은 이들 낙엽활엽수 아래에서만 자란다. 그것도 비가 온 뒤 물이 천천히 빠지는 곳이라야만 한다.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까다롭고, 최근 곳자왓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생지가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지정된 귀하신 몸이다.

세계 유일의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동백동산에서 또 어떤 희귀식물이 미처 발견되지 않은 채 자생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동백나무 파이팅!

동백동산에는 갖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그러나 여간한 관심과 눈썰미를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이름을 일일이 알



이곳의 동백나무들은 가녀린 우유빛깔이라 눈에 확 띈다.



아맞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웬만하면 동백나무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곳에서는 유난히 동백나무들에게 신경이 쓰인다. 이곳 이름이 동백동산이기도 하거니와, 마을사람들이 ‘우유빛깔’이라고 표현하는 나무껍질의 고운 빛깔도 어쩐지 애잔하고, 다른 수종들에 비해 유독 가녀린 몸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백나무는 늦가을부터 꽃봉오리를 만들어가고 한겨울에 피우기 시작해 늦은 봄까지 이어지게 하는 나무다. 동백이 꽃피우기 좋은 계절을 마다하고 하필이면 벌도 나비도 없는 추운 겨울을 택한 것은 엄청난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꽃피우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게 겨울에 꽃을 피우는 동백은 새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는 조매화(鳥媒花)다. 샛노란 꽃술과 새빨간 꽃잎의 강렬한 빛깔로 동박새를 유혹해 꽃통 맨 아래에 품은 꿀을 내어주고 꽃가루받이를 하는 것이다. 종족보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겨울을 택했으니 최선을 다해 꽃피우기를 해야 할 터, 덕분에 꽃이 귀한 한겨울 내내 풍성한 꽃을 보게 하는 게 동백나무의 매력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동백동산의 동백나무들은 대부분 꽃을 잘 피우지 않는다. 피워봐야 몇 송이 정도여서 꽃구경하기가 어렵다. 아이러니하게도 동백동산이 보호림으로 지정되자 꽃피우기보다 급한 다른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동백동산이 보호림으로 지정돼 벌목이 금지되면서 다른 나무들은 빠르게 성장해갔다.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동백나무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위를 향해야 했다. 그렇게



선흘곶 동백동산

햇빛 경쟁을 하느라 꽃을 피울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옛날에 동백나무는 동백동산에서 가장 귀히 여기던 나무였다. 다른 나무들이 벌목되는 동안에도 동백나무는 단 한 그루도 베이지 않았다. 동백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동백기름이 임금에게 올리던 진상품이었기도 했고, 여러모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나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백나무들이 많게 되었고, 동백동산이라 이름 붙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마구 베어지면서 많은 동백나무들이 사라져갔다. 그나마 살아남은 뿌리에서 싹이 터 자라 여러 개의 가느다란 기둥으로 이루어진 맹아목으로라도 자라게 되었는데, 더딘 성장력 탓에 힘에 겨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연을 지니고 있으니, 동백동산 숲속 동백나무들을 응원하

지 않을 수 없다. 햇빛 경쟁에 온힘을 쏟느라 힘든 와중이지만 몇 송이의 꽃이라도 피워내고 있으니 기특하고 대견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동백나무를 향해 마을사람들은 “꽃을 몇 송이밖에 달고 있지 않지만 동백동산의 동백은 많은 꽃을 달고 있는 화려한 동백나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운치를 주고 있으며, 선흘곶 동백동산을 겸손하고 의미 있게 지켜주고 있는 귀하고 사연 있는 동백”이라며 애정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동백동산의 동백나무들이 다 꽃피우기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탐방로 서쪽 입구 쪽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에 자리한 동백나무들은 제법 화려하고 풍성하게 꽃을 피워낸다.

경쟁하고 공존하며

기암과 괴석은 쪼고 새기고 갈고 깎은 듯, 뻗죽뻗죽 솟아나 나란히 서있기도 하고, 꿈쩍 않고 서있기도 하고, 뻗뻗하게 서있기도 하고, 짝지어 서있기도 하고, 서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돌아보며 쫓고 따르며 줄지어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조물주가 재주와 정성을 다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다. 좋은 나무와 기이한 나무가 푸르게 치장을 하여 산림이 뻗뻗한데, 서로 손잡고 서있기도 하고 등을 돌리어 서있기도 하고 옆으로 누워있기도 하고 비스듬히 서있기도 하고 누가 어른인지 다투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잘났느냐고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여 어지럽게 일어나 춤추며 절하고 줄을 지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는 토지신이 힘을 다하여 심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딱 420년 전인 1601년에 제주에 안무어사(조선시대 지방에 특사로 파견하던 관직)로 왔던 김상헌이 《남사록》에 남긴 꽃자왈에 대한 감상이다. 꽃자왈 속 풍광이 어찌나 신비스러웠던지 ‘토지의 신’이나 아니면 빚어낼 수 없다고 느꼈던 듯하다.

동백동산 꽃자왈 역시 기암과 괴석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같고, 나무들이 서로 손잡기도 하고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한 풍경들을 품고 있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생명력을 키워나가는가 하면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공존의 삶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동백동산 지대는 꽃자왈용암지형과 빌레용암이 혼합돼 있다. 대부분의 꽃자왈 지대가 그렇듯 토양이 극히 적은 바위투성이 지대에 뿌리내려 살려는 나무들의 분투가 눈물겹다.

돌덩이들을 휘감아 제 몸의 일부로 삼은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으니 옆으로만 뻗다가 제 무게를 못 이겨 자빠진 채 살거나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고, 아무지게도 판근(板根)이라는 대비책을 만들어 버티며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나무들도 있다.

판근은 나무가 몸을 지탱하거나 버티기 위해서 형성되는 뿌리인데, 보통 줄기와 뿌리가 맞닿는 부분이 둥근 형태를 띠지 않고 수직으로 편평하게 자라서 땅 위에 판 모양으로 드러나게 된다. 불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나무답게 동백동산 안에서 가장 굵고 큰 거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용암동굴이자 4·3유적지, 도틀굴

안내판이 없었다면 이곳이 용암동굴인지 모르기 십상이다. 입구



도틀굴

폭이 1미터 남짓밖에 안돼 보이는 데다 땅으로 꺼져 있기 때문이다. 쇠창살문이 누워 입구를 막고 있다. 궁금해서 들여다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면 지상과 다른 기운이 확연히 느껴진다. 더운 날에는 차가운 기운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기운이 동굴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굴 속 온도가 일정한 편이기 때문이지만, 꽃자왈의 숨결이 피부에 닿은 듯 신비롭게 느껴진다.

도틀굴은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는 동굴로 입구는 1.5m 정도로 좁지만 길이는 331m로 제법 길다.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용암 폭포, 용암종유, 아아용암 등 다양한 용암동굴생성물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지질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동굴유형과 형성과정이 복잡하고 흥미롭게 이루어져 있어 용암동굴의 한 종류를 연구하는데 적합한 동굴로 꼽힌다.

4·3사건 때 주민들이 피신해 있다가 군인들에게 목숨을 잃은 4·3 유적지이기도 하다. 1948년 11월 21일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러나 소개명령 이전부터 군인들에 의해 주민들이 총살당하자 군인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갓 추수한 곡식과 기르던 가축들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비상식량을 짊어지고 선흘곶자왈에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로 찾아들었다. 바로 이 도틀굴을 비롯하여 목시물굴, 대접이굴, 뽕뽕굴 등지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소개명령이 떨어지고 불과 나흘째 되는 날인 11월 25일 이곳 도틀굴이 발각되었고, 며칠 사이에 주민들이 은신해있던 다른 동굴들이 모두 발각되면서, 일주일 사이에 100명 가까운 주민들이 희생되고 말았다.

오랜 생활유적, 노루텅과 솥막터

온통 숲밖에 없을 듯 숲길 다음 또 숲길이 이어지는 동백동산 숲속에서 곳자왈지대의 자연스런 지형지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부러 쌓은 돌담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과거 마을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던 동백동산의 흔적, 곧 마을선인들의 생활유적이다.

동백동산은 비가 오면 크고 작은 습지들이 많이 형성되는 특이한 지형이다. 이 풍부한 습지들은 마을이 이루어지게 한 원천이 되었으며,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다. 사람은 물론 소와 말의 생명수였으



노루텅

며 생활용수를 제공해주는 것 줄이었다. 몇몇 습지들에서는 물통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변에 돌담을 쌓아 정리해둔 흔적도 볼 수 있다.

동백동산은 사냥터이기도 했다. 야생동물의 먹이가 풍부해 노루, 오소리, 꿩, 족제비 등이 많이 서식했다. 노루사냥에

이용했던 '노루텅'은 탐방로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텅'은 인공적으로 만든 둥그런 시설 또는 물건을 뜻하는 제주토박이말이다.

노루텅은 돌담을 가로와 세로 1m 정도 길이로 쌓고, 안쪽에 2m의 정도 깊이가 되게 만든 돌담 함정이다. 겨울철이면 노루가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습성을 이용해 경사진 지형의 위쪽에 길을 내고 아래쪽에 노루텅을 만들어 그 위에 노루가 좋아하는 먹이인 송악 잎사귀 등을 덮어두면 노루가 그것을 먹으려다가 함정으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 노루잡이 방법으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한다.

동백동산의 나무들을 베어다 집을 짓기도 했으며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 이곳의 나무로 솥을 만들어 경제활동



-shotak-

을 하기도 했다. 솥을 만들기 위해 생활했던 솥막의 흔적은 탐방로에서는 볼 수 없지만 선흘곶자왈에는 100년이 넘는 솥가마 2기와 해방 이후에 축조된 70여 기 이상의 1회용 솥가마 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주변을 관망했었다는 상돌언덕

비교적 평탄한 탐방로에서 저 홀로 높이 솟은 바위 무더기가 눈에 잡힌다. 6~7m 정도 높이로 이루어진 바위 동산 사이로 어여쁘고 단단해 보이는 돌계단이 어쩐지 올라가 보고 싶게 얹전히 놓여



-Sangdol-eon-deok-

있다. 맨 위에는 돌이 가지런히 쌓인 평탄면이다.

이곳은 주변을 관망하던 장소였다고 한다. ‘망대’ 또는 ‘망동산’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소와 말을 살피기 위해 오르곤 했던 곳으로 보인다. 동백동산 곳곳에 화전경작이 이루어지고 소와 말을 놓아길렀으며 숲을 굽기도 했던 옛날에는 지금처럼 하늘을 가리는 울창한 숲이 아니었을 터, 이곳에 오르면 주변을 쉽게 조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보호림으로 지정되기 전만 해도 넓은 공터가 있어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 이용됐었고, 언덕 위로 올라가 함덕바다까지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즐기곤 했었다고 한다.

지금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도 온통 숲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저 상돌 언덕 자체가 거대한 작품으로 자리해 있다. 처음에는 하나의 큰 바위였다는데 나무들이 자라면서 바위틈으로 뿌리를 뻗어갔는가 하면, 오랜 풍파를 거치며 떨어져 나간 바위들이 주변에 쌓인 채 식물들과 어우러져 운치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위 아래와 주변에는 다양한 양치식물들이 풍성하게 모여 있고, 바위 언덕 위로 갖가지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리를 잡았다.

동백동산의 대표 습지, 먼물각

수직으로 뻗은 나무들로 울창한 숲길의 그늘을 막 벗어나는 순간 탁 트인 하늘 아래 시원하게 나타나는 ‘먼물각’은 동백동산 습지들을 대표하는 큰물이다. 수평의 풍경이 안겨주는 평안함에 숲속 길과는 또 다른 위안을 받게 된다.



먼물각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이라는 뜻의 ‘먼물’과 꼬트머리를 이르는 제주토박이말 ‘각’이 합쳐져 ‘먼 곳 꼬트머리에 있는 물’이라는 뜻을 지닌 이름 ‘먼물각’이 되었다.

먼물각 습지는 넓이 500여㎡, 평균 수심이 1~2m로 동백동산 안에서 가장 넓고 깊다. 꽃자왈 안에서 흘러내린 물이 지대가 낮은 이곳에 고여 연못을 이룬 것이다.

먼물각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다. 조용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다투어 자라고 수많은 수서곤충들이 깃들어 살아가며, 양서파충류들의 산란장소로, 새들의 쉼터로 사시사철 매우 바쁜 곳이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 환경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유해 물질을 흡수해 분해하고 정화하는 기능 때문에 ‘지구의 콩팥’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꽃자왈 숲은 ‘지구의 허파’로 비유되니, 동백동산은 자연의 허파와 콩팥을 모두 지닌 셈이다. 덕분에 온갖 생명체들이 모여 사는 생태계의 보고로 꼽히고 있다

동백동산 지대는 빌레용암이 넓게 덮여있어 조금만 비가 오면 크고 작은 습지로 변하는 곳이 많다. 습지들은 비가 개면 다시 말라버리기도 하지만 물을 가뒀두기도 한다. 과거에 물이 고이는 습지들은 마을주민들이 습지주변에 돌담을 쌓는 등 손질을 해서 식수며 생활용수로 썼던 물통이었다. 먼물각 역시 과거에 생활용수로 썼던 곳이어서 습지 주변을 둘러가며 쌓은 돌담이 남아 있다. 먼물각은



어리연꽃

큰통과 작은통 두 개의 물통으로 사용했었는데 큰통은 마소에게 먹이고 빨래도 하던 곳이었고, 작은통은 목욕을 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먼물각 바로 서쪽에는 식수로 사용했던 작은 물통이 있다.

‘낙선동4·3성터’의 기억

이곳 4·3성터가 자리한 곳은 원래 ‘벵디왓’이라 부르던 별판이었다. 4·3 당시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던 선흘리 주민들에게 전략촌을 구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1949년 봄, 성을 쌓게 되면서 마을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낙선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성터 입구에 이곳이 4·3유적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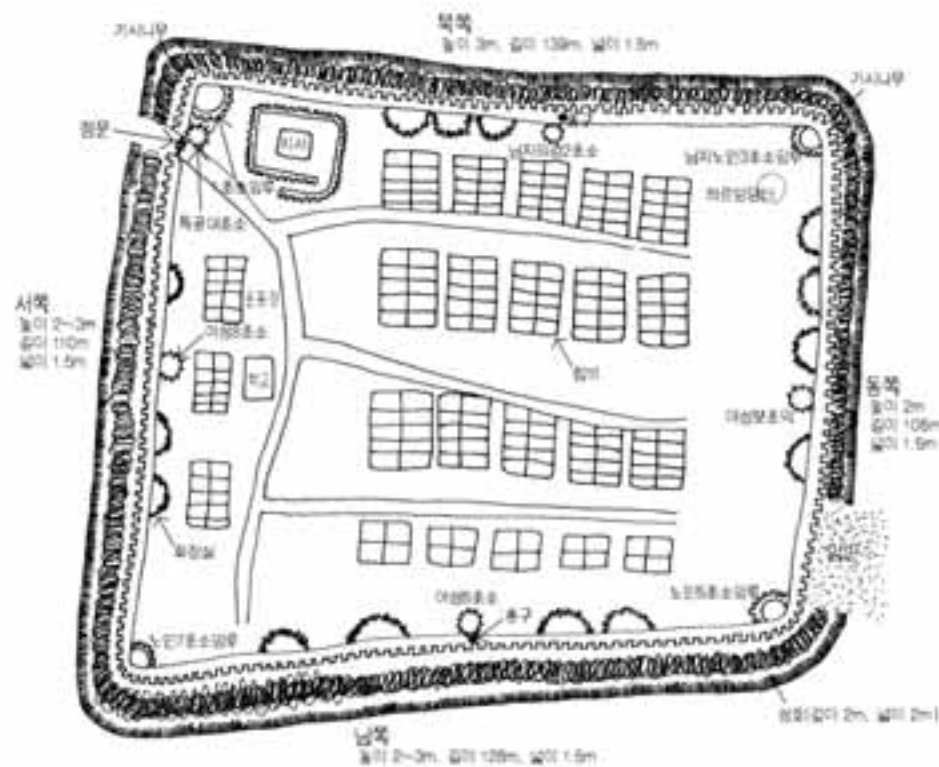
선흘리는 1948년 11월 21일 마을이 전부 불타버렸다. 주민들은 1949년 봄에 돌담으로 길이 500여m의 사각형 모양의 전략촌성을 쌓고서야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성 안의 주거지는 허름하고 좁은 가건물(함바집)이 전부였다. 성 안에서의 집단생활도 힘들었는데,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야 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이 대거 희생되어 성을 지키는 일은 부녀자와 노인들의 몫이었다. 역사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당시 쌓았던 성의 일부를 복원해놓았다.

현재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유적은 292m 길이의 성담과 복원된 함바집, 초소막, 보초대기소, 그리고 제주에서 ‘통시’라 부르는 전통화

1949년 봄,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던 주민들에게 벵디왓에 전략촌



204 선흘1리



김은희, 2006, <제주4.3시기 '전락촌'의 형성과 주민생활-선흘리 낙선동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발췌



성담의 총안. 무기를 겨누거나 바깥쪽을 내다볼 수 있게 하였다.

을 구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선흥주민 뿐만 아니라 당시 조천면 관내 주민들까지 동원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을 등에 업어 날랐다. 발담들은 물론이고 산담의 돌들도 성벽을 쌓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돌을 지어 나르느라 어깨와 등이 다 벗겨졌다.

축성작업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담의 높이 3~3.5m, 폭 1~1.5m, 동벽 110m, 서벽 110m, 남벽 130m, 북벽 140m 정도 길이로 정사각형 모양의 성을 만들었다. 특히 남벽은 그 위로 걸어서 돌아다니며 순찰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폭을 1.5~2.5m로 넓혀 회곽도(廻郭道) 구조로 쌓았다.

성 주위로 성호(城壕), 곧 해자도 뚫었다. 성담 밖을 돌아가며 깊이

2m, 폭 2m로 깊게 뚫었는데, 이 작업이 주민들에게는 성담을 쌓는 것보다 더 힘든 노동이었다. 성호를 감추기 위해 가시덤불을 잘라다가 담아놓았고, 성담에도 가시나무를 덮어놓았다.

성벽 네 모퉁이마다에는 높이 5m, 지름 3~4m 원형 모양의 2층 구조식 망루를, 성담 중간 중간에는 초소막을 세웠다. 성담 위에는 사람 모양의 돌을 군데군데 얹어 놓았다.

성 안 면적은 4,500여 평, 곧 15,000㎡ 정도였다. 그 안에 동서로 세 갈래의 길을 내어 4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주민들이 기거할 함바집을 지었다.

함바는 길게 1.2m 높이로 돌담을 쌓아 군데군데 나무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나뭇가지를 걸쳐놓아 제주에서는 ‘새’라 부르는 띠로 덮었다. 함바가 높지 않아 몸을 굽혀 드나들었다.

함바는 한 동을 다섯 칸씩 갈라서 다섯 세대가 들어가 살았다. 억새를 새끼줄로 돛자리처럼 엮어 세대별 칸막이로 세우고, 바닥에도 억새를 깔아놓았다. 방, 부엌의 구분도 없는 그 한 칸이 한 세대에게 주어진 생활공간이었다.

이곳 함바에는 와산리, 웃선흥, 알선흥, 선인동 주민들이 들어왔다. 처음에 50세대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250세대까지 붙어났다.

통시, 곧 화장실은 성담에 붙여 만들었다. 반원 모양으로 돌을 쌓아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게 디딤돌을 두 개 놓았고, 돼지를 키우기도 했다. 동서남북 성벽 저마다 3~4개씩 모두 15개 정도의 통시를 만들었지만 거주민 수를 감당하지 못했다. 냄새는 항상 지독했고, 비가 올 때면 넘치기 일쑤였다.

함덕지서 파견출장소가 설치되어 성안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비

순찰을 담당했다.

의식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성안에서 지내게 된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며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물이 문제였다. 성밖에 있는 봉천수를 길어다 먹어야 했는데 먹을 물도 모자라 몸을 씻는 등의 위생적인 생활은 바랄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1949년 가을농사부터 지을 수 있었다. 성밖에 있는 밭에 가려면 경찰에 일일이 신고하고 도장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성안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밭까지 가지 못하고 성 주변의 밭에서 농사를 지었다.

전 주민이 경비 활동에 투입되었다. 노인도 여자도 돌아가며 보



낙선동4·3성터에 복원된 '통시'

초업무를 췄다. 더구나 1950년 6·25가 발발해 가뜩이나 모자란 남자들이 예비검속 되거나 입대 등으로 떠나게 되면서부터는 농사지을 겨를 없이 보초에만 전념해야 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부터 생각해 성안에 학교도 들어섰다. 함덕국민학교 선홍분교가 설립된 것이다. 학교는 1950년 7월 교육청의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2명의 교사가 있었고, 15명의 아이들이 공부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곳에서 6년여를 살았다. 통행제한이 풀리면 서 선홍마을 사람들 일부는 본디 마을이 재건되면서 돌아갔고 일부는 성안에 남기로 했다. 당시 성안에 남은 23호의 가구는 지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땅을 분할 받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는 와



성벽 밖으로 테크산책로가 조성돼있다.

중에 성담의 돌을 지키기 위해 뿔뿔 뭉쳐야 했다. 돌을 찾아가겠다고 오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했다. 발담, 산담들을 허물어 성담을 쌓았으니 그 돌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것도 이해는 됐지만, 그때는 주변이 편편한 벌판이어서 성담을 허물면 바람 때문에 살 수가 없게 생겼던 것이다.

결국 성안에 남게 된 사람들이 성담을 지킨 셈이고, 그 성담이 지금의 ‘낙선동 4·3 성터’라는 유적으로 남게 된 셈이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은 서벽과 북벽 전체, 그리고 동벽의 일부다. 성벽 바깥으로 성담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테크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잘 정돈된 분위기여서 무심코 걸으면 발걸음이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을 알고 나면 마음까지 무거워진다. 4·3의 광풍 속에서 성담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았던 주민들의 고난과 고통이 어려 있는 곳을 이렇게 편하게 걸으며 봐도 되나 싶어지는 것이다.

거의 모든 마을마다 구축해 살았던 4·3성은 제주마을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 성만큼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없다. ‘낙선동4·3성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제주4·3의 기억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추억이 될 수 없다. 70년 세월 저 편의 기억을 아프게 간직하고 있는 4·3유적지, 낙선동4·3성터가 전하는 4·3의 교훈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불카분낭’의 사연

마을 안길에 심상치 않아 보이는 아름드리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띈다. 마을에서 ‘불카분낭’이라 부르는 나무다. ‘불카분낭’은 ‘불타버린



불카분낭

나무'를 일컫는 제주토박이말이다.

이 나무의 수종은 늘 푸른 큰 나무, 후박나무다. '후박하다'는 말이 있다. 인정이 두텁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다. 이 뜻에서 후박나무의 이름이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나무 모양이 후박한 시골 인심처럼 편안하고 너그러워 보이고, 예로부터 나무껍질은 위장병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애용됐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이곳의 후박나무는 껍질이 3분의 2 이상 벗겨진 채 뿔뿔히 찢어진 밀동안으로 속살이 들여다보이는데, 숯처럼 새까맣게 탔던 흔적이 남아 있다.

언제부턴가 이 나무가 4·3의 상흔을 안고 있다고 알려지기 시작했다.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 21일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불태워질 때 이 후박나무에도 불이 옮겨 붙어 오래된 밀동까지 타 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나무의 한쪽에서 새싹이 돋아나더니 가지를 뻗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4·3의 상처를 간직한 채 곳곳이 살아가는 이 나무가 4·3의 아픔을 극복한 선



흘리 마을사람들의 모습처럼 의연하고, 더 나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억척스럽게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도민의 모습과 닮았다고 숙연해 했다. 이런 사연에다가 껍질마저 많이 벗겨져 있어 나무는 더 비장해 보인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이 나무가 4·3사건 때 불탄 게 아니라고 한다. 그보다는 더 최근에 불에 탔는데 어쩌다 4·3사건 때 불탄 나무라고 와전됐다는 것. 그리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것은 누군가 후박껍질을 한약재로 쓰기 위해 벗겨갔기 때문이라고.

나무의 입장에서 그것이 4·3사건 때문이든 아니든 불에 타버린 일 자체가 엄청난 수난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유야 어떻든 밀동까지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가지를 뻗고 숲이 많은 일을 무성하게 피워낸 이 거목의 생명력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역시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껍질이 많이 벗겨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줄기 틈틈이 뿌리 내린 다른 식물들을 품어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은 신비롭게까지 하다.

에필로그

'생태관광마을 선흘1리'의 여정

예나 지금이 동백동산을 뺀 선흘1리는 상상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동백동산은 마을을 이룬 원천이었고, 함께 공존하고 가꾸어가야 할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다.

선흘1리의 자산은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연뿐만이 아니다. 마을이 이어온 역사와 생활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마을은 이들 자산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선흘1리의 모토는 ‘생태관광’이다. 그리고 그 모태는 ‘동백동산’으로 대표되는 선흘곶자왓이다. 습지를 품고 있는 동백동산은 선흘1리를 설춘케 한 원천이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의 젖줄이자 생활기반이 돼주었기에 마을사람들의 관심과 보호를 받던 삶의 터전이었다.

1970년대 상수도가 공급되고, 나무를 대신할 새로운 연료가 등장하고, 감귤농사가 시작되는 등 마을사람들이 곶자왓에 삶을 기대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백동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마을상징 중 하나인 제주고사리삼



마을상징 중 하나인 종가시나무 도토리

도 했었다. 더구나 1971년과 1973년에 문화재로 연이어 지정되어 법적 규제를 받으면서부터는 재산권 피해나 개발제한 등으로 불편한 존재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다.

동백동산이 마을사람들에게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

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세계자연유산마을, 환경친화생태마을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이후 선흘1리에는 2008년 자연생태우수마을, 2010년 환경부습지보호구역, 2011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는 등 새로운 타이틀이 거듭 붙여진다. 특히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지정 등으로 생태관광지 시범사업대상지가 되면서부터는 ‘선흘곶 동백동산 습지’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인식에 새로운 불이 붙기 시작했다.

선흘1리가 생태관광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구성한 것은 민관협력을 위한 협의체였다. 2011년 5월 지역주민, 환경단체, 행정 환경부 담당자,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생태관광시범마을추진협의체’가 결성되었다.

마을사람들은 협의체와 함께 습지생태체험을 시작하면서 동백동산의 생태적 가치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민참여 보전을 위한 방법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선흘곶 동백동산'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환경부 생태관광지 시범사업대상지 지정에 이어 2013년 3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었다. 이에 2013년 6월 협의체를 바탕으로 한 '선흘1리 생태관광추진협의체 비영리사업단'이 설립되고,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에 관한 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에 관한 사업,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지역주민 주민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14년 드디어 '환경부 생태관광 성공모델마을'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원탁회의, 그리고 행복한 생태관광사업

2014년 2월 15일 선흘1리 마을체육관에서는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진풍경이 벌어졌다.

체육관 안에는 “삼촌 우리 마을 자랑이 뭐우짜?”라는 글귀가 새겨진 커다란 현수막이 걸리고, 커다란 원형탁자 여덟 개가 놓였다.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어 탁자 하나에 저마다 10명씩 나누어 앉았다. '마을 상징 찾기 대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마을 상징은 왜 필요한지, 다른 마을의 상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존중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토론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

등에 대한 안내에 이어 저마다 생각을 말하고 의견을 나누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원탁은 윗자리도 아랫자리도 없고 모난 데도 없는 평등한 자리다. 거기에서 아예 백지에다 저마다의 생각을 내놓고 그것을 투표해 모아나가는 상향식 토론을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 시도하는 마당이었다. 어느 마을이나 그렇듯 마을지도자가 안전을 들고 나오면 그것이 좋다 또는 싫다는 의견을 말하는데 익숙해있었지, 이런 식의 토론은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노인들이 대다수인 시골마을에서 원탁의 백지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머뭇거리는 시간이 잠시 흘러갔다. 할머니들은 멍뭉뭉뭉 말을 꺼



선흘에서 만난 풍경



내지 못하고, 할아버지들 한두 사람이 의견을 끌어가기도 했다.

원탁마다 섞여 앉은 젊은이들이 제안이 아닌, “삼춘, 어릴 때 뭐하
명 놀아수파?”, “삼춘, 우리 마을에서 제일 사랑할 만 게 뭐고 예?”
등의 질문을 던지자 대화의 붓물이 터지기 시작했다. 원탁 저마다
주고받는 대화로 웅성웅성 이야기꽃이 피어나더니 체육관이 이야
기 소리로 가득 찼다. 그렇게 40분 동안의 원탁토론으로 24개나 되
는 상징이 모아졌다.

상징 후보 24개를 모두 벽에 써넣으며 자신이 낸 의견에 대한 이
유와 지지를 호소하는 발표가 이어졌고, 한 사람이 다섯 표씩 던질
수 있는 투표에 들어갔다. 그 결과 ‘동백동산, 선홀자연습지, 종가시
나무도토리, 제주고사리삼, 4·3성터, 용암동굴’ 등 6개의 마을상징
이 탄생했다.

이날 선홀1리 주민들은, 마을의 남녀노소가 참여해 둥글게 둘러
앉은 평등한 자리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아 모아놓고, 그것을
서로 지지하고 발표하며 공정히 겨루고, 모두가 인정할 결과를 스
스로 이끌어내는 기쁨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그러는 동안 진지하고
설레고 기대에 찬 표정들, 적극적이고 신나하는 몸짓으로 체육관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그렇게 선홀1리는 2014년 두 번의 원탁회의를 통해 마을의 상징
을 정하고, 마을의 기를 만들고, 마을의 선언문을 만들어 냈다.

선홀1리 주민들이 원탁토론회를 통해 만들어낸 ‘마을선언문’에
는 이 마을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내용도 담겨있어 소개
해본다.

‘선홍1리 생명 약속’

설촌 이전부터 이 터를 지켜온 선홍곳 동백동산과 그 안에 깃든 자생식물, 동물, 그리고 모든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보전할 것이다. 또 서로 화합하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를 지키며,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홍1리 리민은,

- 선홍곳 동백동산과 마을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잘 정리하여 후세에 남기겠습니다.
- 여행자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친절하고 의미 있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 마을 경관 개선(돌담 정비, 전주지중화)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갈 것입니다.
- 마을과 동백동산을 방문하는 여행자의 구간, 인원을 규제하여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자생식물 야생화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더불어 여행자는,

-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 되가져가서 청정한 선홍1리를 지켜주십시오.
- 숲과 마을 안에서는 금연을 지켜주십시오.
- 동백동산 탐방로를 벗어나 동식물을 해치거나 훼손하는 행동을 삼가주십시오.
- 마을 안 통제구역은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함부로 기웃거리지 말아주십시오.
- 차량으로 마을에 들어설 때는 속도를 줄이고 지정된 곳에 주차해주십시오.
- 사진을 찍을 때는 미리 의향을 물어주십시오.
- 마을의 전통과 의미가 담겨있는 기념품과 지역생산물을 활용해 주민소득에 기여해주십시오.

2014년 생태관광사업단을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015년 원탁회의에서는 “삼촌! 생태관광협동조합 ㄱ치 해보게 마썸?”을 내걸고 토론을 벌여 “동백동산 보전을 우선으로 하며 생태관광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마을 공동복지로 쓰자”는 의견에 합의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사업단 구성을 결의했다.

2016년 원탁회의에서는 선홍곳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목표를 이끌어냈다. 곧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동백동산의 보전 및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선홍1리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목표로 삼은 것이다.

2018년 드디어 주민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이 창립됐다. 그리고 함께 이끌어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백동산보존사업, 생태관광사업,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곳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공헌형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이어 환경부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선홍1리는 원탁토론을 통해 주민 모두가 함께 재미나게 의논하고 결정하며, 즐겁게 마을의 원칙을 세우고,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해가는 등 공동체가 행복한 생태관광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영원한 상생의 땅으로

선홍1리는 완벽한 생태관광지로의 자립을 꿈꾸고 있다. 마을장



기발전계획에 현재 잘 진행 중에 있는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4·3성터를 주제로 한 치유테마거리 조성, 동백동산 내 조선시대 유적을 소재로 한 생활문화역사코스 프로그램 개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 복지후생시설 마련 등의 계획도 있어 진일보된 마을관광을 기대케 한다.

더 나아가 선홍1리는 자연과의 공존을 넘어 상생을 꿈꾸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생태환경파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동백동산곶자왈을 보전하며, 마을과 사람 그리고 자연이 하나 되는 생태관광을 잘 발전시킴으로써, 동백동산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올곧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 스스로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있으며, 생태관광을 통한 6차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사록(南槎錄)》

《남한박물(南宦博物)》

《동여비고(東輿備攷)》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영주산대총도(瀛洲山大總圖)》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제주도생활상태조사(濟州島生活狀態調查)》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제주읍지(濟州邑誌)》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탐라방영총람(耽羅防營摠覽)》

《탐라도(耽羅圖)》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탐라지(耽羅誌)》

강용삼, 1980, 《제주의 인맥》, 태광문화사.

고광민, 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곽정인·이경재·한봉호·송지호·장종수, 2013, 〈제주도 동백동산 상록활엽수림 식생구조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7, 241-252.

국립민속박물관, 2007, 《제주의 꽃자왈》, (주)신광씨링.

金寧國民學校, 1987, 《金寧學區鄉土誌》.

김은희, 2006, 〈제주4.3시기‘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선흘리 낙선동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제2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민속원.

김찬흠, 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김효철·송시태·김대신, 2015, 《제주, 꽃자왈》, 숲의틈.

박상진, 2011, 《우리 나무의 세계 2》, 김녕사.

北齊州郡, 2000, 《北齊州郡誌 上·下》.

北齊州郡, 2001, 《北齊州郡 碑石總覽》.

사단법인 한라산둘레길, 2020, 《한라산둘레길》.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곳, 2020,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곳 뉴스레터》, No.1·2·3·4
선흘국민학교, 1987, 《선흘학구향토지》,

선흘1리생태관광협의회, 2015, 《동백동산 해설 매뉴얼》.

선흘1리생태관광협의회, 2016, 《선흘곳에 물이 어서시민 어떻게 살아시코》.

선흘1리생태관광협의회, 2018, 《선흘의 요리를 담다》.

송시태, 2000,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
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송시태·김효철·김대신·류성필·좌승훈, 2007, 《제주의 꽃자왈》, 제주특별자치
도·국립민속박물관.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오창명, 2010, 〈지명유래 곳곳에 사연 깃든 땅이름〉,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
산마을 선흘1리》,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이경미·신정훈·정현모·김해란·김정호·신동훈·유영한, 2012, 〈멸종위기 식물 제
주고사리삼의 입지와 식생구조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습지학회지》 14,
35-45.

전용문·안용산·류춘길·강순석·송시태, 2012, <제주도 꽃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예비 연구결과>, 《지질학회지》, 대한지질학회.

정광중·강경희·강만익·고광명, 2012, 《꽃자왈의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 -꽃자왈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조사》, 국립산림과학원·(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정광중·강성기·최형순·김찬수, 2013, <제주 선혈 꽃자왈에서의 숲 생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건지리학회지》, 제23권 제4호, 한국사건지리학회.

제민일보꽃자왈특별취재반, 2004, 《제주의 허파 꽃자왈》, 도서출판 아트2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94,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선혈리 현지 학술조사보고>, 《백록어문》 10.

濟州道, 1998, 《濟州의 民俗Ⅴ-民間信仰-社會構造》, 濟州道.

제주도, 2006, <제2장 민간신앙>, 《濟州道誌》第7卷, 濟州道, 183~258쪽.

제주4·3연구소, 2020, 《제주4·3유적(개정증보판)》 I (제주시편).

제주연구원, 2017, 《제주문화원형-설화편》 1.

제주특별자치도, 2007, 《愛郷의 보람》.

제주특별자치도, 2016, 《마을만들기 사례집 행복마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011, 《거문오름 종합학술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사) 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10,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혈1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6, 《재일제주인공덕비 1-제주시 동(洞)지역,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0, 《한 눈에 보는 (예비)사회적기업》.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현용준, 1976, 《제주도 신화》, 서문당,

현용준·현승환, 1996,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현화자·문명옥·최형순·김찬수, 2014, <제주고사리삼(Mankyua chejuense B.-Y. Sun, M.H. Kim & C.H. Kim)의 생장 형태 및 식물계절학적 특성>, 《한국자원식물학회지》27, 95-101.

Chung M., 2006, "Theaceae", *The Genera of Vascular Plants of Korea*, pp.365~368.

Makino T., 2000, *Newly Revised Makino's New Illustrated Flora of Japan*. THE Hokuryukan Co., Ltd. Tokyo.

Min T. and B. Bartholomew., 2007, "Theaceae", *Flora of China* 11: 366~478.

Sun, B.-Y., M.-H. Kim, C.-H. Kim and C.-W. Park., 2001, "Mankyua (Ophioglossaceae): A new fern genus from Cheju Island, Korea", *Taxon* 50: 1019-1024.

Shinohara W., N. Nakato, Y. Yatabe-Kakugawa, T. Oka, J.K. Kim, N. Murakami, H. Noda, N. Sahashi., 2013, "The use of matK in Ophioglossaceae Phylogeny and the Determination of Mankyua Chromosome Number Shed Light on Chromosome Number Evolution in Ophioglossaceae", *Syst. Bot.* 38(3) : 564-570.

Pteridophyte Phylogeny Group, 2016, "A community-derived classification for extant lycophytes and ferns", *J. Syst. and Evol.* 54(6): 563-603.

신문 및 웹사이트

《제주신보》 1947년 7월 2일자

도구리제주향토음식점: <https://doguri.modoo.at/>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

법씨학교: <http://byeopssi.kr>

선흘리: www.ramsar.co.kr

이미애갈옷: jejuclot.es.net

이미애갈옷 블로그: blog.naver.com/leemiaegal

제주4·3평화재단, 4·3아카이브: https://www.jeu43peace.or.kr/kor/sub01_04.do

제주동백동산습지센터: <http://ramsar.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학 중앙연구원: <https://www.aks.ac.kr/index.do>

인터뷰

부상철(이장)

고병문(마을해설사)

김호선(동백동산습지센터 총괄팀장)

이영이(법씨학교 대표)

자문위원

고제량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안현미 | 한라대학 방송영상학과 겸임교수

편집위원

박찬식 | 제주역사연구소장

강경희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이윤형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특별연구원

집필진

자연생태자원

지질 : 송시태 | 세화중학교장

동물 : 김완병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식물 : 김찬수 | (사)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소장

역사문화자원

박찬식 | 제주역사연구소장

사회·생활자원

강경희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연구원

산업자원

고광명 |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소장

관광자원

문소연 | 스토리텔링 작가

사진

오승목 | 다큐제주

간사

진소정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선홍1리

©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2021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대표전화: 064-710-8992~3
www.jeu.go.kr

(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632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65, 상가동 308호
대표전화: 064-726-6425

제작처 한그루 onetreebook.com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6867-017-4 94080
ISBN 979-11-6867-014-3 (세트)

비매품

